朝鮮日報

第二夕刊
二十四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姉妹誌『朝光』『女性』『少年』

趙膏藥

通貨膨脹回避策檢討
大藏省金融方面에着手

【東京電話同盟】明年度百三億豫算遂行에 따를 惡性인 膨脹回避策은 物價問題와 關聯하여 戰時經濟運行上 가장 重要問題의 하나로 米內新內閣의 이에 對한 方策에 對하여는 各方面으로부터 注目되고잇는터인데 大藏當局으로서는 爲先인 膨脹回避의 金融側面對策에 關하여 目下 모든 角度로부터 徹底的硏究를 하고잇다 그리고 大藏當局의 이에 對한 根本對策으로서는 我國의 經濟的現狀에 卽應하여 急激乃至飛躍的인 新制度를 採用하는것은 金融機關에 波及되는 反作用이 크므로 이點을 考慮하여 依然消極的不定的態度를 가지고잇서 今後金融機關과의 協議에 依하여 傳統的方策을 中心으로 具體策을 決定할것으로 豫想되는데 一方時局의 進展은 從來에 比하여 積極的方策을 要求하고잇스므로 結局다음가튼 諸方策에 對하여 그 實現에 關한 詳細檢討한後 漸次손쉬운것부터 實施할것으로 보인다

一、通貨膨脹의 根源인 彪大豫算遂行에 잇서서 될수잇는限 支出의 縮少를 圖하고 經費의 節約事業의 延期等을 圖謀할

一、公債消化의 促進을 圖하기 爲하여 金融機關에 自主的『公債消化의 目標』를 樹立시키고 大藏省은 그 指導監督을 强化할것

一、資金調整法에 依한 金融統制法의 强化를 圖謀하여 物資와 資金과의 調節을 期할

一、特殊金融機關에 特別預金口座를 設置하여 餘剩資金의 吸收를 圖謀할

一、이두가지 形態로서 郵便貯金에 五年後度의 長期据置貯金을 設置하고 普通貯金現行短期貯金의 据置期限一年, 利子年三分의 金利에 比하여 相當히 高率로할

一、貯蓄債券의 發行을 增加하여 大幅으로 引上하여 民間購買力의 吸收를 圖謀할

一、民間剩餘購買力 吸收의 一策으로 富籤思想을 利用하는 新債券을 發行할

一、最近의 地方農村에의 低位小型株의 普及은 大衆投資의 健全維持上 惡結果를 招來할것으로 豫想되므로 金融機關의 監督을 强化하는 同時에 從來자 都市中心主義이엇던 國民貯蓄獎勵를 全國的으로 組織化하여 地方滯留의 資金吸收를 圖謀할

一、公債의 大衆化로 現行保管制度及登錄制度를 活用擴充할

關西電力不足深刻
化學工業에도停電
財界巨頭等打開策에奔走

【大阪電話同盟】日發關西給電所管內의 電力飢饉은 逐日深刻하여 二十三日에는 同社傍系大同化學(六、五〇〇키로)의 送電停止를 斷行하나 一方五時에는 大井、新山、小町三發電所의 "땜"을 放流시켜 겨우 危機를 突破하엿는데 이때문에 二十四日의 惡化가 豫想되게되어 日發으로서는 벌써 日曹日産化學等特殊契約方面의 送電停止도 不可避라는 見解를 보이게 되엇다 이에 關하여 關西産業界에서는 이가튼 瀕死狀態에 잇서 産業界를 半死半生狀態로 繼續시켜 時日을 넘기는것보다 此際斷然公共事業電燈等을 除한 全産業界를 短期間에 限하여 一日送電을 停止하고 그동안 石炭의 配當을 充分히 하여 完全한 制限緩和의 豫想이 선때에 電力供給을 復活하자는 拔本塞源的對策樹立을 要望하고잇다

【大阪電話同盟】未曾有의 電力饑饉에 當面하여 그 根本對策을 協議하려고 二十三日의 京阪神三都官民代表緊急對策協議會에서는 假然日發의 態度에 憤慨한 非難을 하여 石炭調達에 關하여 普通手段으로는 到底히 期待할수업스므로 炭坑에 個個的石炭契約을 解約하고 優先的으로 日發에 供給시키자는 等의 率直한 意見이 續出하엿스나 結局京阪神의 官民代表로 京阪神三市長三商議會頭及小倉住友總理事、村田大阪商船、關東洋紡、津田鐘紡、鐮谷川崎重工業等各社長、關西財界巨頭들이 二十四日夜 上京、萬難을 排除하고 遞信、商工兩相의 西下를 促進하여 內閣의 總力을 들어 이 問題解決에 잇서 적어도 炭坑에 石炭徵用令發動과가튼 應急措置에 努力하여달라고 强調하기로 되엇다

【大阪電話同盟】繼續한 電力制限도 效果가 업서 日本發送電의 石炭配當은 依然困難하여 二十一、二十二兩日에 걸처 日發의 責任下에 한 非常制限에도 不拘하고 또다시 月末까지 平均三割(最高四割五分)의 强度制限을 하지안흘수업게되엇다 日發의 無

外相英大使에警告
淺間丸事件去益擴大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 二十三日午後九時外相官邸에 西歐亞局長、山田同第二課長을 招致하고 淺間丸事件의 對策에 關하여 同日午後海外關係者會議結果에 基하여 協議를 한結果 二十二日深更谷次官으로부터 크레기英大使에 手交한 對英强硬抗議에 對하여 다시 有田外相으로부터 크레기大使에 對하여 거듭 帝國의 見解와 決意를 表明하여 外交措置上帝國政府로서 萬遺憾업기를 期하기로 決定하고 午後九時半外相官邸에 크레기大使의 來訪을 求하여 約三十分동안 會見을 하엿다 卽右會見에서 有田外相으로부터 二十二日夜谷次官이 하엿슴과 同樣 英國의 今番暴力에 依한 不法行爲를 詰難하고 이 不法行爲를 附會하려는 英國側의 一方的見解를 反駁하여 帝國의 公正한 一般的見解를 明白히 하는 同時에 抑留獨逸人 引渡要求의 權利를 [illegible] 것을 抗議하엿는데 다시 目下太平洋에서 本國으로 向하여 航行中인 榮洋丸 銀洋丸 라·플라타丸 龍田丸等의 日本商船에 對하여도 帝國政府의 堅持하는 國際法上의 主張을 貫徹하기 爲하여 有效適切한 自衛措置를 取하고잇스나 英國海軍에서도 淺間丸臨檢事件과가튼 不祥事를 再發시키지 안토록 深甚한 考慮를 하여달라고 强히 嚴然한 態度로 警告를 發하는 同時에 萬一거듭하여 不祥事를 再發시키는 境遇에는 我朝野가 인는 甚大한 衝動은 日英兩國의 關係에 어떠한 重大影響을 波及시킬는지 알수업다고 하여 英國側의 어떤 點에 對한 深甚한 注意를 喚起하여 以上의 帝國見解와 眞意와를 速히 本國政府에 傳達하여달라고 要請하엿다 이에 對하여 크레기大使는 帝國의 見解는 充分히 諒承하엿스므로 速히 英國本國政府에 通達하겟다고 말하고 同十時半會見을 마첫다

皇太子殿下、葉山에行啓

【東京電話同盟】皇太子殿下께서는 二十四日 廣幡皇后宮大夫、石川傅育官以下 各傅育官、伊地知、道木兩御養育係等을 隨伴케하시고 午前九時五十分 赤坂東宮假御所를 御出門、皇太后陛下御使酒卷事務官其他의 御能送을 바드시며 特別電車로 東京驛을 御發車、同十一時十分逗子驛御着、葉山御用邸御附屬邸에 行啓하시엇다 當分間御滯在의 御豫定으로 拜承되는데 이번還啓하옵시면 學習院初等科에 御入學하옵실터이라고 拜承된다

日本輿論沸騰에
英國側은驚愕

【倫敦二十三日發同盟】淺間丸獨逸人拉致事件에 關한 日本政府의 抗議文要旨는 二十二日 크레기駐日大使로부터 英國外務省에 到着하엿는데 日本의 抗議文成文은 到着될것으로 期待되고잇다 抗議文의 內容은 大體二十二日夜 日本外務省으로부터 發表된 聲明書와 同一主旨의 것으로 생각되는데 仔細한 것은 알수업다 英國外務省은 이미 愼重한 檢討를 開始하고잇스나 回答을 發表할 時期에 關하여는 何等示唆도 업다 官邊側에서는 日本의 輿論이 이 事件에 關하여 非常히 憤激하고잇슴에 對하여는 驚愕의 뜻을 表明하고잇서 結局 이 事件을 圍繞한 論議의 中心點은 國際法的으로 보아 다음가튼 二點에 歸着할것이라고 하고잇다

一、淺間丸을 臨檢하여 이를 拿捕할 權利

一、敵國人을 拉致할 權利

그리고 第一의 點에 關하여는 英國政府는 交戰國으로서 中立國船舶을 公海上에서 臨檢搜索할 權利는 이미 各國으로부터 承認된 明瞭한 權利라는 見解이고 第二의 點에 關하여는 交戰國의 敵國의 現役軍人만이 아니라 敵國에 歸還을 許可하는 때는 敵의 軍務에 服役할 可能性이 잇는 者도 拉致할 權利가 잇다는 見解를 가지고잇다

全國的反英運動
青年黨英大使에要請書手交

【東京電話同盟】英船의 淺間丸臨檢事件에 關하여 大日本青年黨은 英國에 對한 徹底的糾彈運動을 展開하기로 決定하고 二十四日午後一時 同黨東京府聯合支部主催로 示威行進을 하여 다음가튼 要請書를 英大使에게 手交한것을 비롯하여 全國的反英運動을 展開하기로 되엇다

要請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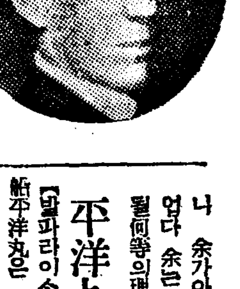
지난 一月二十一日 帝國近海에서의 英國軍艦의 淺間丸臨檢事件은 實로 帝國에 對한 一大侮辱으로 我國民의 光榮을 冒瀆하는 일이다 이에 吾人은 全國民의 意思를 代表하여 速히 [illegible] 反省을 求하는 바이다

上海第三國人과 淺間丸事件

【上海二十三日發同盟】英艦의 淺間丸臨檢事件은 當地外人側에도 異常한 關心으로 重視되고잇는데 歐洲戰爭의 當事國인 英佛人側은 別問題로하고 米國人을 主로하는 第三國人等은 일직부터 香港經由로 上海에 遞送되는 郵便物에 對한 香港政廳의 檢閱에 對하여 넘우 傍若無人이라고 非難하고잇는 때인만큼 今次淺間丸事件에 잇서서의 英國所行은 누구나 다 同感할수잇다는 見解를 取하고잇다 그리고 當地米人의 輿論은 意外의 곳에서 意外의 共鳴者가 나오는것이다 日本이 淺間丸臨檢事件으로 英國에 對하여 憤慨하니 米國도 英國의 公海에서의 郵便物에 對한 不法措置에 對하여 抗議를 하엿다

지 米國으로부터 香港을 經由하여 上海에 遞送되는 郵便物에 對하여 香港政廳이 不當檢閱을 한다고 屢屢抗議하엿는데 日本及米國에서 事態가 이와 가치 重大하게된 지금 我等의 問題는 飲食에 고명과가튼것이다 勿論 나라를 들어 存亡을 걸고 戰爭하고잇는 英國의 立場은 充分히 理解하여주어야할 것이나 그러나 吾人은 아무리 하여도 中立國을 憤慨시키는 것은 交戰國으로서도 結局損이 되는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릴수는 업다 가장 親英的인 [illegible]紙도 『公海에서의 米國郵便物의 臨檢에는 米國民은 憤慨하고잇스므로 英國이 이를 繼續하면 米國民의 對英感情은 自然惡化의 一路를 것게될것이다 英國의 輿論은 大十%英佛側에 同情하고잇다 此際郵便物의 臨檢을 再考하지 안흐면 안된다』고 [illegible] 日英關係를 더욱 惡化시키지 안토록 [illegible] 手段을 取하지안흐면 안되는지 吾人은 英國의 方針을 알수업다

日英國交調整工作
重光大使英外相과會談



【倫敦二十三日發同盟】重光大使는 二十二日午後四時十五分外務省으로 할리팍스外相을 訪問하고 約一時間동안 會談 一般日英國交調整問題、天津問題等에 關하여 意見을 交換하엿다 天津問題에 關하여는 英政府의 態度로는 아직 큰 變化는 認定치못하여 妥協點到達까지에는 아직도 相當한 困難이 잇을 模樣이다 그리고 獨貨拿捕令適用에 關한 點이 잇스므로 그 改善에 關하여 英國의 誠意잇는 取扱을 要望하엿다 淺間丸事件에 關하여는 會談까지 公報가 到着되지안하엿스므로 新聞情報에 基하여 意見交換을 行하고 重光大使는 日英國交調整交涉의 進展되고잇는 이지음 이가튼 事件이 發生됨은 자못 遺憾이라고 말하엿다(寫眞은 重光大使와 英外相)

堀內、바兩氏會見

【華盛頓二十三日發同盟】堀內大使는 二十三日正午國務省을 訪問하여 感氣로 靜養中인 헐國務長官의 代理인 바크國務次官補와 約四十分동안 日米通商關係에 關하여 重要協議를 하엿다 大使는 바크國務次官補와의 會見後記者團과 會見、質問에 對答하여 如左히 말하엿다 日米通商關係는 通商條約失効後도 現在의 狀態를 繼續하기를 希望한다 日本으로부터 二十四日、一月二十六日以後米國輸入品에 對하여 何等새로운 關稅를 賦課치안는다고 明示한 訓令을 發布할것이다 그리고 日英兩國間에 最近 秘密條約을 締結하엿다는 風說이 流布되고잇스나 余가 아는限 이가튼 事實은 업다 余는 이가튼 條約이 締結될 何等의 理由도 듯지못하엿다

006365

又復龍田丸臨檢
호놀룰루附近서英驅逐艦

【호놀룰루廿三日發同盟】郵船龍田丸一乘客으로부터 호놀룰루에 達한 無電에 依하면 二十三日호놀룰루近海에서 一驅逐艦이 龍田丸에게 停船을 命하고 船名及目的地를 訊問하는 同時에 龍田丸船內를 臨檢하엿다 英驅逐艦으로부터 一切對答이 업섯다 그리고 龍田丸乘客中에는 獨逸人五名이 잇섯다 그中二名은 無事히 難을 免하엿스나 그中三名은 自發的으로 호놀룰루에 下船하엿다고 한다 그리고 龍田丸은 二十三日午後十二時(日本時間二十四日午前零時)頃호놀룰루에 入港할 豫定이다

【東京電話同盟】淺間丸事件의 善後處置及·英海軍의 不法强力行爲를 防止키爲하여 二十四日午前十一時外務省에서 前日에 繼續하여 關係官會議를 開催하고 外務省으로부터 山田歐亞局一課長、松平條約局二課長、海軍으로부터 軍務局高山中佐、柴中佐、遞信省으로부터 管船局木村事務官等이 參集하여 外務省側의 英國情報로서 英政府는 淺間丸問題를 甚히 國際法解釋의 相違에 基한 一個小紛爭이라고 생각하고 事態를 輕視하는 모양으로 看取되나 此點我國民感情에 對한 重大한 認識不足을 暴露하는것으로 有田外相은 廿三日夜 크레기英大使를 招致하고 事態의 重大性을 說明하여 本國政府에 對하여 深甚한 考慮를 促하도록 勸告한 뜻을 說明한다음 十八日 桑港을 出帆한 郵船龍田丸이 호놀룰루를 르고압바다에서 英艦에게 停船臨檢된 情報를 確認하고 그 措置及今後의 對策에 對하여 重要協議를 續行하엿다

平洋丸智利發

【발파라이소二十三日發同盟】郵船平洋丸은 獨逸 [illegible] 船員、水夫二十三名을 태우고 二十三日智利의 발파라이소港을 出帆하여 日本으로 向하엿는데 同船의 航海는 淺間丸事件直後의 일이므로 各方面으로부터 注視되고잇다

郵船白山丸 羅府出帆

【桑港廿三日發同盟】郵船白山丸은 二十三日 羅府를 出帆하여 파나마의 발보아市로 向하엿는데 同船에는 歸國의 途에 오른 스탠다드石油會社油槽船의 獨人船員約四十名이 乘船하여 잇스므로 時節이 時節인만큼 注目을 끌고잇다

橋本大佐着任

이번 國民精神指導官으로 朝鮮軍報道部에 勤務하게된 橋本勇松大佐는 二十四日에 着任하엿다

豫算遂行에努力
大野政務總監渡東前談話

大野政務總監은 議會政府委員으로 出席하기爲하여 明二十五日午後四時 京城發"아까쓰키"로 東上하는데 二十四日午後總督官邸에서 記者團과 會見 左와如히 말하엿다 議會에 提出될 豫算은 中央에서도 大藏省內閣의 것을 그대로 踏襲할 모양이므로 新內閣에 依하여 變更될 일은 업스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쪽으로서도 最少限度의 適切한 施策이 잇서서는 안될것이다 豫算施行에 關하여도 自然新內閣의 政策如何에 依하여 決定되지 안흐면 아니되겟지만 內閣의 政綱政策에 依하여 準備하려고 생각한다 政府는 [illegible] 선 첫재로 石炭對策에 關하여 確實한 對策을 決定하엿는데 朝鮮으로서는 그다지 困難하지도 안흐며 全鮮의 生產擴充計畫中 豫定대로 遂行하고잇다 [illegible] 今後七、八年은 電力界에 [illegible] 이에 對하여 電力도 [illegible] 現狀으로 電力은 얼마든지 供給할수잇다 그러나 朝鮮은 大體의 豫定도 樹立되어잇스므로 念慮가 업다고 생각한다 [illegible] 物資不足이 이러니저러니하지만 現在의 日本에는 아직도 節約할 餘地가 充分하다 나는 一九三三年 伯林에 잇섯는데 石炭이 업서서 一個月에 一回밧게 沐浴을 할수가 업섯다 [illegible] 이것도 行政機構와 交通機關의 [illegible] 보이고잇다

營林署長會議
二月二十二日부터

總督府에서는 [illegible] 新年度부터 二十石二萬町步 [illegible] 二月二十二日부터 二十七日까지 六日間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營林署長協議會를 開催키로되엇다

農村更生施設
國庫補助配定

昭和十五年度 農村經濟更生施設豫算中 團體에 對한 國庫補助는 郡島에 잇서서의 婦人指導者의 設置에 要하는 經費及農村振興關係指導者에 對한 臨時講習會의 開催에 要하는 經費의 補助를 新規로 增額하는 外에 大體로 前年度와 가치 補助할것으로 하고 郡島婦人職託設置費補助 五萬八千圓 指導者臨地講習會費補助 五千圓 中堅青年台業指導費補助二 [illegible] 으로 配定되엇다

▲二月二十一日—二十四日 協議
▲二十五日 仁川府所在朝鮮木材工業會社創立十週年紀念祭
▲二十六日—二十七日 協議

[illegible]三十八萬六十四圓 農村更生指導費補助 五萬六千二百九十圓 [illegible] 七千四百三十二圓 合計二十二萬六千五百八十六圓을 補助키로되엇는바 各道의 配定額은 다음과 갓다 한다

京畿	一九、八〇〇圓
忠北	一〇、三三五圓
忠南	一六、三二四圓
全北	一六、二〇七圓
全南	二三、九三四圓
慶北	二四、〇九三圓
慶南	二三、三三六圓
黃海	一八、三三一圓
平南	一四、三〇一圓
平北	一七、三九三圓
江原	二〇、〇四〇圓
咸南	一五、四五六圓
咸北	九、三三六圓
計	二二六、五八六圓

또이外에 農村青年訓練所에 對한 補助費로서 六萬八千圓이 計上되엇다한다

穀物檢査所增員

穀物檢査所에서는 十四年中에 六十九名의 人員을 增員키로 決定하고 目下詮衡을 하고잇는데 今回의 增員으로 京城出張所에 七人을 配置하여 [illegible] 各主要都市에 主로 配置하여 穀物檢査와 協力 市販米의 品質低下를 積極的으로 防止하기로되엇다

中央綏靖委員 本部閉鎖

【開封二十三日發同盟】開封中央綏靖委員會는 吳佩孚將軍의 死去에 依하여 今番 同會本部를 閉鎖하고 和平救國軍으로 活動하기로 되엇다

人事·集會

▲川島大將 朝鮮慶南聯盟大會로부터 二十四日午後四時十八分京城驛着大陸으로 향발
▲鹽原學務局長 同上
▲朱耀翰氏(和信百貨店部長)新任 人事次廿四日來社
▲張濬應氏(和信連鎖店株式會社連鎖店部長)同上

電力問題打開에 國民協力을要望
勝邇相談

【東京電話同盟】勝邇相은 二十三日閣議散會後 다음가치 말하엿다 各方面의 協力에 依하여 送電用石炭의 配當豫想이 서게되엇다 當分間은 電力再制限以前에 復歸하기로 月標로하는데 將來에는 制限을 撤廢하려고 생각한다 그러기爲하여서는 外國炭의 輸入도 考慮되는데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確實할수는 업다 말할것도업시 電力은 産業의 動力이므로 國民이 一致協力하여 電力의 消費節約을 圖謀하지안흐면 안된다 더욱이 石炭配當豫想이 섯다고하여도아직 當分間은 容易하지는 못하므로 當局의 電力制限方針을 勵行하여 難局을 突破하는데 協力하여주엇스면조켓나 國民이 그러마음만 가진다면 法的制限을 할必要는 업스리라고 생각한다

倫敦向發
駐佛澤田大使

【巴里二十三日發同盟】澤田駐佛大使는 重光駐英大使와의 事務協議를 爲하여 二十三日 午後五時巴里를 出發 倫敦으로 向하엿다

八面鋒

◇米에 最惠國待遇許與、帝國의 大德度와 國際信義의 發顯。

◇儲金擁護란 헛소리로 東亞新秩序를 認識못하는 "양키"와는 天壤之判。

◇淺間丸事件으로 朝鮮排英同志會 蹶起、東亞로부터 英米勢力驅逐에 急務。

◇高、陶兩者汪氏를 背叛 東亞大業에 認識不足者는 除去爲好。

◇貯炭量調査 集中과 外國炭輸入이 石炭應急對策、閑話休題이 겨우 이것?。

◇地方民熱意와 寄附로 新設中等校配定、돈업스면 배울수업는 世上。

◇寒威는 去益猛烈、三寒四溫도 옛말인지。

◇大旱災민에 降雪조차적다、今年 年事가 도리정되는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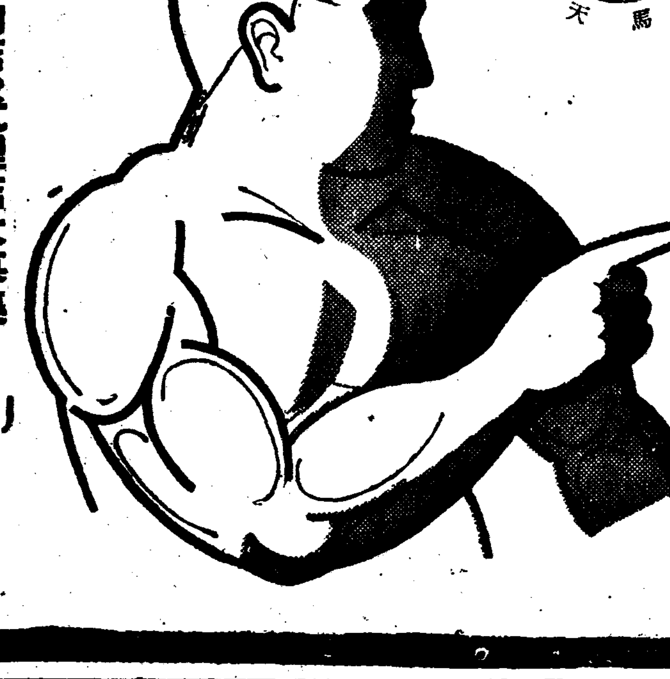
社告

本社出版部에서 刊行하는『朝光』『女性』『少年』의 三大月刊雜誌와 및 各種單行本은 過去數年間 本社의 犧牲과 및 滿天下의 歡迎으로 躍進的發展을 遂하엿사온바 出版部自體의 內部的充實에 鑑하여 二十二日本社重役會에서는 出版部를 分離獨立시키어『株式會社朝光社』를 設立하여 組織의 革新과 機構의 擴張을 斷行하여 時代의 要求에 應하기로 決定하엿사오니 滿天下諸彦은 此를 諒하시고 倍前의 援助를 주심을 懇望하나이다

朝鮮日報社

KEIJ YOSINYAKU

世界的靈藥高麗人蔘主劑品



補보 血혈 強강 壯장
更갱 生생 丸환

特約店、代理店大募集

適應症
貧血·神經衰弱·消化不良
食慾不振·常習便秘·榮養障害
結核諸症·脚氣·糖尿病·胃擴張·胃加答兒·腎臟病·不眠症
自家中毒症·衰弱姙娠婦·惡阻

復劑 恢의 力 體 榮養 强壯 增强
本劑는世界의神藥高麗人蔘粉末과酵母를主體로한科學的新製劑이온바臨床實驗의結果로가장强力的인理想的强壯劑인것을證明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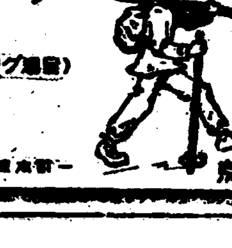
血液淨化作用
本劑는體內에不調한血液을淨化하며 新生케하고血液循環을活潑하게하여 體內一切의細胞의活力을增進하며最短期間에健康을恢復하고補血强壯의作用을이르킨다

整腸 通便 調整 作用
本劑는胃의活力을增强시켜消化液分泌를促進하야 食慾을增進하며消化素의힘을强化하야 腸管의機能을活潑케하고整腸作用을하는同時에便通을自由롭게한다

(胃腸患者에게는本社特製劑『萬力錠』을推薦합니다)

包裝
500粒入—¥4.80
1000粒入—¥8.40
10000粒入—¥72.00

發賣元 京城新藥社 京城西大門町二丁目一番地
振替京城二二二七二番 電話光化門⑬四六二番


スケート スキー 用品

京城 [illegible]

賀正
馬山飲食店組合
副組合長 房鎭永
總務 李致先

白癜 紫癜 痲木 蟻行 痛症 手足痲痺 其他濕瘡 火傷 가치부르트는症
速治劑 新肌光 新發明
문등병 癩病
京城府龍頭町 東都製藥合資會社

治療家短期養成
日滿獨英米佛 (專賣特許)
器械鍼
◎退職者治療師業續不振方 ◎夜間開業も自由に出來る ◎實地速成科 ◎通信科
奧村刺戟療法
無試驗開業
府縣願宛開業届書類交附 學則 三錢要送 大阪西區江戶堀下通五丁目
奧村療法學院 (朝鮮京城大和町三ノ五五)

오케 海上 끼개안
OKEH

菜蔬類와生鮮에도 暴利取締令을適用

九·一八價格停止令에除外돼奇貨로昂騰하고잇서

當局、積極的으로抑壓方針

구일팔가격 정지로 할미암아 일반물가는 일단머리를 들지못하게하엿스나 채소 생선가튼것의시끼는 투기옥 방면의 책동과수송이 원활치못하여 현저히앙등하고 잇는경향이잇서 일반대중생활을 압박하고 잇슴에비추어 총독부에서는 이에대한근본대책에 대하여 방금연구를진행시키고 잇는데 생선과 채소에도 폭리취체령을 전면적으로적용하여 가격억압에 적극적태도를가지고 임하도록당국의방침중에 경무국과 식산국 두국장의통첩을 내기로되엇다

皇紀二千六百年 外 記念切手와日附印

황기이천육백년을마지하여체신국에서는 기원절에 두종류의 기념우편절수를발행하여 오늘부터 전조선우편국소에서 팔기로되엇다기념절수의 이전짜리는 자황색(紫黃色)이오 도삽전짜리는 홍색으로 모두보통절수보다크며 정교한조각으로 근래에드물게보는 호화로운것이다 그리고 또 이절수를 발행하는 동시에 팔지조(八咫鳥)와 서운(瑞雲)을그린 도안의 특수통신일부인이 전조선의 각우편국소에서 이월십일일부터 금년십이월말까지 계속하여 사용할터이다 그리고 이번기념절수는 전에도 역시사전 이신전의 기념절수가발행될터이라한다

廣木에暴利본行商

부내와룡정(臥龍町)일백사십일번지 포목행상하는 오덕종(吳德種)(二〇)은 수일전 중국인에게서 광목세필을 공정가격보다 비싸게사서 그보다더 비싸게소매하여온 사실이종로 경찰서경제계에 적발되어 이십칠일유치처분을바닷다

教員檢定試驗

제칠십이회 사범학교 중학교고등여학교교원검정예비시험은 소화십오년도조선총독부교원시험위원회에서 오는사월십일일부터 십삼일까지사이에 시행할것이발표되엇는데그시험과목과 출원기한은 다음과가틈데 자세한것은 일월이십사일관보에 실리어잇다

시험과목

公民科 敎育 國語 漢文 理科(動物 植物 鑛物 生理及衛生 物理 化學) 圖畫(日本畫用器畫 西洋畫用器畫) 手工 音樂 作業科 體操(體操 敎練 劍道 柔道)

출원기한

오는이월오일까지에 수험지의 지방장관(조선에서는 조선총독부학무국장)에게제출할것

水道敷設難解決

二月末까지에鐵管二萬米突을購入하게되어

解氷期에積滯工事等一擧着手

철관(鐵管)이 품귀해진것으로 최근경성시내의 수도신설공사가 뜻대로 진행되지아니하여 경성부수도과에서는 부득이 이제부터는 신규신청은 일체받지안키로하고 철관구하기에만 전력을다해오고 잇던중 이지음내지모처에 제조업자로부터 철관이만미돌가량이라면 느저도 이월말까지는 어김업시 보내어주겟다는 반가운통지가 날러드러와서 계원들은 반가운소식에 놀래어 절출을 모르고잇는형편이다 철관 이만미돌이면 일년간소요수량의 삼분의일은 넉넉히 된다는 당하대량인데 부수도과에서는 이것을가지고 아프로 어름이 풀리기를 기다려서 현재신청은 바더노코서도 공사를안하고 보류중에잇는 유백건가까운 묵어오든 공사를 일거에 해결해버리고저 벌서부터 벌르고잇다

京城府의教育費起債

四百五十萬圓臺에

新規二百九十萬圓으로大幅增加

신년도경성부의교육비(제이부 특별경제)는 영단이대규모의 교사신, 증, 개축과 교지확장매수비때문에 전년도에비한다면 이백여만원이나 일거에팽창되여오르게되어 이때문에 부당국에서는 여기대한재원염출책으로 거액의기채를단행할수바게는 도리가 업게되어 신년도쯤으로 이백구십만원정도를 새로 기채하기로방침을 정하엿다 이것은 소화구년도에 기채한 제삼회교원공채로부터 소화십사년에 발행하게될 제칠회교원공채에 이르기까지의 전후다섯차례에 걸처서 발행한공채에대한 원금과 이자를 신년도에 갑허주기로 되어잇는액수도물론 적지안히 포함되어잇기는하나 대부분은 신년도의 교육신영비(新營費)로충당키위해서인것이오 한편 이월일일 현재로 경성부가 소화십오년일월말부채(府債)잔액이 아직도 일백육십사만구천원이나남어잇는 이때에 이제다시 신년도의 이백구십만원이 첨치게되면 무려 사백오십사만여원이라는 한개도시로서는 놀라운거액의 교육부채(府債)를 짊머지게되는폭이어서 이것을어떠케 전부가퍼나갈지가 금후의주목거리가 되어잇다

京城儒道會

今日結成式

宣言發表、役員選定

황도정신을드러내로삼고 유도(儒道)를 다시이르켜보고저 이십사일오후한시경성부청회의실에 경성에잇는 유림관계의 유지이백여명이 모혀서경성유도회 결성식을거행하엿다식은궁성요배로써막을열고천원이일분간 묵도를필친후양재창(梁在昶)씨의 취의서낭독이잇섯고 이어서 좌장으로산전(山田)경성부총무부장을 추천하야회의를 진행시켜 회측을결정한후 역원선거에드러가서 회장에고교(高橋)경성부윤 부회장에신석린(申錫麟)장헌식(張憲植)양재창(梁在昶)삼씨가 피선된것을 비롯해서 고문(顧問) 참여(參與) 평의원(評議員) 상임리사 이사 감사 참사등 전역원을선거한후 이승우(李升雨)씨가 별항파가튼 선언문을 낭독하엿고 이어서 감자(甘蔗)경기도지사의 고사(告辭)와 래빈편으로 도변풍언(渡邊豊彦)씨의 축사가잇슨후 김(金)경성부 재무부장의선창으로 황국신민서사제송이잇섯는데 이것을마친후 일동만세삼창으로 폐회하엿다 결정된 역원은아래와갓다

京城府儒道會役員

會長 高橋敏 副會長 申錫麟 張憲植 梁在昶 顧問 鹿島實 金漢昌 韓圭復 閔泳徽 李範鎬 金寧洙 石原磯次郞 肥塚正太 小林采男 閔丙奭 速水滉 鄭丙朝 權益相 前田昇 金英鎭 卓競吉 石川登盛 元悳常 賀田直治 井上淸 閔大植 御手洗辰男 崔麟 金甲淳 方應謨 白寬洙 齋藤五吉 常任理事總務部長 李升雨 敎化部長李弘鐘 敎育部長鄭萬熙 經理部長金潔集 山田緊吉 金永洙 長狐衛二 杉市郞平 加納一米 理事朴興植 崔昌學 朴基孝 金思演 李啓植 李丙吉 宮原豪眞 野富太郞 森爲源藏 湯山潤一 洪祐完 監事 高橋實石 中村恒道 稻垣辰男 岡野定乙吉 參事石川慶一 文鶴振 宮部保太 湯淺睦通 宋太鎬 朱琉燮 (參與朱榮煥氏外九十六人)

宣言

一、我等京城府內儒林은 聯絡統一잇는 團體를組織하여 皇道精神을 基幹으로하는 儒道의 振興을 期함

二、我等京城府內儒林은 國民精神總動員의趣旨에 좇차널리忠孝道義의 信念을 涵養하여써 皇國臣民으로서의本分을 完遂할것을期함

三、我等京城府內儒林은 東亞新秩序建設의 國是에 則하여東洋文化의 眞價를 闡明하여써 日滿支永久平和를위하여 精神的聯繫를할것을期함

(사진은 결성식)

京慶線 友保 安東 間

建設工事完成在邇

경경선(京慶線)우보(友保)안동(安東)사이에는 개통하게될터이다 완성되게되엇스므로 오는삼월초 삼키로의 건설공사도거의 완성중이므로이것도 삼월중에 양평(楊平)원주(原州)사이(약오십키로)의 건설공사는 요지음에 거의 하순쯤에는 개통될뜻하다

金庫窃取犯

수일전 본정(本町)삼정목 팔십칠번지 도지방태랑(島津芳太郞)의 집에드러가 금반지 현금증권등 약일천원이 들어잇는금고를 도적하여가지고 도망한범인이 이십삼일 본정서에 체포되엇다 이는 부내 옥천정(玉川町)삼십칠번지 김천만(金千萬)(二二)으로 작년가을까지 도전의 조히상자만드는 공장에서 일을하던 공직이라는것이 판명되엇다

痘患者一千名突破!

各地에서廿三日에發生新患者만卅名

끄칠바를 몰으고 끄리에끄리를물고 계속하여 만연하는천연두는 지난이십삼일 하루에도전조선에서 삼십명이라는 다수의환자가발생되어 방역당국자들로하여금 머리를앓케하고잇다 그런데 총독부경무국에 들어온전조선각지의 발생환자상황집게를보면 이십삼일현재 발생자총수는 드디어 일천명을돌파하여일천세명이라는 놀라운수짜를보여주고잇다 이가운데 완전히나흔사람의수가 삼백사십일명이오 현재까지도 알코잇는환자가 이십일명이며 사망자의수가 이백사십사명이라는 다수로서 발생자총수의 이할사분을 차지하고잇는현상이다

兼二浦에痘禍

【兼二浦支局發電】겸이포읍영정(榮町)사십칠번지 이모(李某)의 둘째아들이 그동안 병으로신고하고잇던바 이십사일 오전에이르러 천연두로 판명되어 당지경찰은 크게놀라 방금방역에전력을다하고 잇는중이다

사흘굶고도적질

고양군중면장항리(高陽郡中面長項里)삼십번지 김만봉(金萬鳳)(三〇)은 지난삼일새벽엽집 김팔룡(金八龍)의 창고바람벽을 뚤코 들어가 쌀한말되를 도적한것이 란로되어 이십삼일 서대문경찰서에 체포되엇는데취조경관에 대하여 「사흘굶으면도적질 아니하는사람 업다더니 사흘이나 위장안이 굶는것을보고 어쩔수업서 도적질햇소」하고애원하엿다한다

清酒詐欺犯再現

물을술이라고또팔아

청주(淸酒)가귀하고보니 맹물을술병에다 너허가지고 사기를해먹는자가 또생겻다 이십이일 오전열한시서빙고정(西氷庫町)일백구십팔번지 잡화상 이대득(李大得)의집에 한삼십세쯤보이는사나이가 자전거에 청주금천대(金千代)한되드리병 열여덟개한상자를 실고와 자기는 종로 한남상회(漢南商會)에서 왓는데 이술을 주문한사람이 서빙고의 으로갓다달러햇는데 아직오지안잇섯스나 술이어가겟다고 들어와 파일까지 사먹고서 오후二시가넘도록기다리다 주문한사람이오지안는모양이니 그대로 갈수바게업다고하며 나갓다한다 이에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팔라하여 열여덟개에삼십삼원을주고삿다한다 그런데 그이튿날 술을팔라고 상자를뜨더본즉 그것은 술이아니라 전부가 맹물만이든 물병이어서 곳 용산서에 고발하여왓는데 동서에서는 얼마전에 한남정(漢南町)에서 생긴이와똑가튼 청주사기사건도 아직범인을 잡지못한터이라 극력범인을 수사중이다

第6回全朝鮮女子氷上競技大会

時日 二月三日(土曜)午後一時

場所 清凉里綜合滑氷場

申請

◇競技種目＝二百五十米、五百米、千五百米、二千米繼走

◇部別＝中等部、專門部(一般女子도參加)

◇參加申込＝中等、專門을分別하여每人二種目(繼走는此限不在)所屬 氏名을明記한後 一月卅一日까지 朝鮮日報運動部로

主催 朝鮮日報社

後援 朝鮮氷上聯盟

多島海上漁船卅隻遭難

乘組員百餘名生死不明

【全南支社特電】이십삼일 다도해(多島海)방면에 출어중이던 선 삼십척은 추자도(楸子島)부근에서 폭풍과 파랑으로 조난하엿는데 그선원일백여명은 생사가 불명이라는 급보가 잇서 이십사일 전남경찰부에서는 경비선 무궁화(無窮花)호를 출동케하엿다

市計令實施要望

江陵邑民不便莫大

【江陵】팽창하여가는 영동의대도시강릉에 큰지장을 이르키고잇는것은 시가지계획령의 시행유예인데 십오년도에는 기어히 실현시키기위하여 동읍장도 요로당국에 진정하엿는데 이진정이 성과 잇기를 기대하고잇다 이시가지 계획령이 실시되지안어 가옥건축수리공사조차지금까지중지하고잇는등으로 이때문에밧는 동민들의 불평고통이란 이루다헤아리키어렵다한다

咸北道에서 三種教員試驗

【咸北支社】함경북도 학무과에서는 오는이십팔일부터 삼십일일까지의사이에 나남공립고등여학교(羅南公立高等女學校)강당에서 제삼종교원시험을 시행하게되엇는데 처음 삼일동안은 학과시험을 치르고 남은이틀에는 교육실지시험을 치르게 되엇다는데 수험희망자는 이십칠일정오까지도학무과에 출두하여 지원하고 여러가지주의사항을 알어야하게되엇다

乞人凍死

이십삼일오전일곱시쯤 부내현저정(峴底町)사번지압 길거리에서 이십오륙세된 남자거지가 얼어죽은것을 행인이발견하고경찰에통지하엿스므로 경찰은 시체를경성부에넘겨매장케하엿다

스포-츠

漸々迫頭하는 京平氷上對抗戰

二月十一日大同江서

半島氷上競技界의 歷史的行事로 大衆의 注目을이끌고잇는 第十一回京城對平壤氷上對抗戰은 本社 平壤支社의 主催로 來二月十一日에 平壤大同江 링크에서 擧行키로 되엇다 이 大會에 參加하는選手들은 氷上朝鮮의 覇權을 노리고 맹연습을 계속하고잇는니만치 大盛況이 벌서부터 豫期되어 大端히 注目을이끌고잇다

東亞競技大會 第一回準備委員會

【東京體育同盟】紀元二千六百年奉祝의 東亞競技大會의 第一回準備委員會는 二十三日 午後五時부터 東京에서 開催하고 滿洲國體育聯盟理事長 木良夫氏 華北新民會體育協會主事 安田光明氏 關東州體育協會理事 小會員 一郞氏와 外務省에서 笑林事務官 伊東書記等 出席하여 여러가지로 協議한結果 左의事項을 決定發表하엿다

一、大會名稱은 紀元二千六百年奉祝 東亞競技大會라함

一、右大會를 主催하는데 對하여 大日本體育協會는 紀元二千六百年奉祝會及 東京市의協力을求하여 三者共同主催로하고 厚生、文部、外務、拓務各省 紀元二千六百年式典事務局 國民精神總動員中央聯盟에後援을 依賴하기로함

三、大會期日 第一案 五月二十三日부터 二十六日까지 第二案 六月中旬부터 下旬까지

四、參加國 日本、滿洲、中華、泰國、比島、布哇、蘭領印度

五、滿洲國及中華의參加競技種目

▲滿洲國

正式參加競技種目 陸上競技 蹴球 排球 籠球 自轉車 未定競技種目 庭球 軟式庭球 拳鬪 馬術 럭비- 野球

▲中華

決定競技種目 陸上 蹴球 排球 籠球 未定競技種目 庭球

六、大會經費豫算 二十二萬圓

汎米五輪大會開催

米國體協(AAU)委員會에서 지난 十九日에 今夏의 올림픽大會를 開催하기가 不可能할때에는 汎米올림픽大會를 米國에서 開催하기로 決定하고 開催期日은 아즉 未定이나 會場의 所在地는 羅府 桑港 紐育 떼트로이트等이다

高專、中等피규어 申請은城大學生課로

朝鮮學生氷上競技聯盟主催의 第三回大學 專門學校及 中等學校「피-규어」大會는 旣報한바와가치 來一月二十八日(日)午後一時부터 東崇町 城大「링크」에서 擧行케되엇는데 申請을 아즉도아니한學校는 城大學生課 氷口安俊氏에게로 速히 申請하기를 바란다고한다

餘錄

해마다 봄철이면 일종의소동가튼 입학난의 시기를압두고 학교를새로더세우게 된다는것은 소식중에서도 반가운소식이다 ▲역시사람의 즐거움은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 호월의 보람이되는것에 더큰것이업다 ▲그러자니 자녀들가움에는 자라는대로 소학교에 보내고 중학교에 보내고 내지는 전문대학에라도 보내어 세상이치를 배울대로 배우게 하는것밧게업다 ▲사람이 산다는것은 안다는것에 뭉한다 세상을 알지못하고 지내서는 산다는 뜻은 업서진다 실로 배워야살고 아는것이 힘이되는것이다 ▲요행 북되는것은 조선사람은 살림이 궁하고 먹을것이 변변치못해도 배워야겟다 가르켜야겟다는생각만은큰것이 보배이다 ▲이번새로서는 학교로해서 입학난이 얼마나더완화될지는모르나 설사 기대한만큼 완화는못된다해도 학교문이 터지도록 학생들이 모여드는것만도 장하다안놀수업다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 ▲六時童話三夜 ▲六時三〇分라디오讀本 ▲七時三〇分講演 ▲八時(東)現代日本音樂 ▲八時三〇分라디오小說 ▲九時南道歌謠 ▲一〇時一〇分初步國語講座

여러분에美麗한姿態를 보시라면
本町二丁目 (鐘路茶店裏通)
水原スタヂオへ

中古樂器買入 ピアノ、オルガン、蓄音器其他 京城明治町二丁目

朝報案內

時計技術者採用 京城本町一丁目 高木時計店

支部長募集 老少不問 固定月收三百圓以上 照會三錢切手要 京城府授恩町五五 大日本帝國東都美術院

地方事務員採用

喫茶店讓度し 場所 京城驛前 希望者 電話本局一四六〇番

痔疾

內勤事務員採用 朝鮮文店

女店員募集

女子販賣係募集 森永キャンデーストアー 電話光化門四一〇七

急告 雜貨特約店募集

神効藥 늑막염 임질 약

手足

湖南線東裡里驛前 米雜穀 新炭 委托販賣 大陸物産商會 主 朴潤昌 電話 三三三番

補血·强壯·强精·特效劑 리그로판 (花鹿茸精血) 共生藥業株式會社 電話光化門二五四七番 振替京城二二〇〇二番 定價七円五拾錢

治腫靈藥 三仙膏 京城本舖樂園町 共生藥業株式會社 電話光化門二五四七番 振替京城二二〇〇二番

謹告

本日故小林社長葬儀ノ節ハ御多用中殊ニ寒氣嚴シキ折柄ニ不拘御多數御會葬ヲ賜リ誠ニ難有厚ク御禮申上候先ハ右不取敢以紙上御禮旁々御挨拶申上候

敬具

一月二十四日

株式會社 丁子屋商店

本報江陵支局電話 江陵 二一六番

가루미름 ビオスメール 乳兒의 補助榮養과 離乳期食餌에 藥店에有함

京城齒科醫專

京城實踐簿記學院 生徒募集

官認 朝鮮第一自動車學院 學生急募

京城女子商業學校 生徒募集 試驗日時 二月廿七日-三月二日 (定員一五〇)

京城貞信女學校 生徒募集 願書接受期限 二月十五日

松都中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 約五十名

大同工業專門學校 生徒募集 願書締切三月十日 平壤府新陽里

官認 京城高等簿記學院 第五十三回生徒募集

官認 京城中等專修學院 第八回生徒募集

燒酒藥酒再製加入原料大推奬

…「피카소」와 觀覽者 ⑤…

젊은 夫婦가 熱心히 바라보고 잇는것은 「잠자는女子」라는 作品입니다. 사나이는 아무리 보아도 無限의 表情을 理解할수업는듯 그림가까이 얼굴을 가저갑니다. 안해는엇저나 「피카소」의 … 바라보고잇습니다.

學藝

文·藝·月·評 現實과 結構의 距離 (下)

尹圭涉

이달 **創作** 白鐵氏의「展望」(人文評論)은 陣에잇서서 確實히 問題作이다. 그것은 從來의 作家들을 든사람으로서의 處女作이란 意味에서가 아니라 作品의內容이 政治와文學의 關係, 科學者와文學者, 人道主義의文學 幾多의 複雜한 問題에 抵觸되고잇슴으로써이다. 따라서 여기制限된紙面에서는 그것을省略하고서 (다른機會에 쓰겟다) 다만 이作品에서 作者가내세우는 典型的人物타입—韓利午 새時代의 擔當者로서의 金利午 少年政治家의 活動性을갓진모든 다시말하면 典型的人物이 아니라는것을 說明해두고 同時에 作品속에나타난 作者만이 流行하는 觀念的政論의 典型性을 떠고잇다는것을 附言하여둔다.

精神 파 肉體가 惰弱하여 信念을 潮함을 鋼鐵가튼 意志, 意欲을 잃흔靑年 그結果로 無氣力 … 表現잇는 作品입에 놓엿섯슴것이다. 混沌하는 中流家庭을 背景으로 所謂거리의인테리의 自意識을레—마로 그려진 이作品은 確實히 現實生活의 一面을 正面에서 겨누엇다. 意識이란 인테리의 知的能力을 表示하는 苦悶의「포—즈」가운데 表示될것이 아니라 個의生活에잇서서 認識과 實踐과의 統一的「모맨트」에의 自覺을 가르지는것으로서 問題는 거기에 客觀性을 갓고 못갓는데 잇는것이다. 이作家는 今後에잇서서도 이作品의 主題를 좀더 明瞭히 끌고가야할 餘地가잇다.

印象 李善熙氏의「窓子」(文章) 金起林氏의「月光恨」(文章)은 어데인가 共通된 印象을 주엇다. 「로맨틱」한 敍情에 흘르는 「센틔멘타리즘」은 作品을 安價의것으로만드럿다. 더욱이 오뎐을 깨트린 李善熙氏의게는 만흔期待를가지고 對하엿스나 作品의 構成이 不足하엿고 缺이엇다. 아무리 文章의힘을 빌린다하려도 作家의머리에 展開的으로 떠올르는「힌트」만가지고는 作品을 結構할수는 업는것이다. 그러기에 小說은 「리얼」이라고 불르지안는가.

鄭飛石氏의「惜別歌」(新世紀) 亦是「스토리」보다도 文章만느러노흔 作品이엿다. 더욱이 全篇에 흐르는 感傷的文句는 無用의것이엿다. 描寫하여 作品을 내고잇는 이作家는 短篇의技術을 다시한번 考究할必要가잇다. 本實的으론 現實의把握 題材의整理 主題의明瞭化가 勿論不可缺한것이나 거기에다 다시 短篇으로서의 表現의省略 印象의鮮明을 念頭에서 버리지말어야할것이다.

아직도 論及하지못한 作品이 五六개나잇스나 그것은 水準以下 또는 未完의탓으로 이만붓을 멈춘다. 새해의 健鬪을바라며……. 一月十七日

志士 朴英熙氏의「明暗」(文章)아직도 作家로서는 未熟한 솜씨이다. 그러타면 이作品에는 어데인가 作家로서보다도 志士的인 風貌를 엿보게한것이잇다. 人道主義者金정석은 自己를 이저버리고 自己를 崇仰하는사람에게나 自己를 誹謗하는사람에게나 다가치自己의誠心을 바치는誠實의 人間이다. 그러나 이가튼 倫理的措定—安價의 人道主義는 自慰的인것으로될지모르나 文學精神으로 보아서는 幼稚하다고할밧게업다.

實驗 朴啓甲氏의「三人行」(文章)은 直截하게말하여 이作家는 作品을試驗함으로 일고잇는作家이다. 作品이 나올적마다 새로운 實驗이 繼續되고잇다. 勿論實驗에잇서 朝鮮文學全體가實驗期에잇다고하여도조흔때인만큼 그가튼試作이 必要하다고도 할수잇다. 그러나 定向업는 實驗은 作家個人에잇서서는 損失임을아러야할것이다. 이번「三人行」은 너무나 무거운데다가 作品의 世界는 좁앗섯다. 或者는 이作品에서 生活寫實과 諷刺를 들추어낼지모른다. 그러나 그것은어데까지 諷刺의諷刺와 寫實이다. 거기에는 肝緊한 現實의概括이缺如되어잇다.

鄭人澤氏의「凡家族」(朝光)은 아까운 作品이엿다. 後半에가서 題材를 整理못하고 테—마를살니지못하여 失敗하지만 안앗섯던들 모처럼 이달의 收穫物이 …

學藝안테나

蔡萬植氏出版記念

朝鮮이 가진 中堅作家로 꾸준히 小說의正道를開拓하여 나가고잇는 蔡萬植氏의 長篇小說「濁流」와「蔡萬植短篇小說集」이 上梓된것을 機會로 文壇知友二十餘名의發起로 다음과가치 記念會를開催하다고 한다 (寫眞은 蔡氏)

▲時日—二十六日午後五時半
▲場所—府內昭和通京城호텔
▲會費壹圓五十錢(當日持參)

讀史餘錄 朝鮮武士小史 (五)

安自山

李朝武士

麗朝때에는 武士가 秉軸하여 天下를 左右하더니 李朝에와서는 그와 正反對로 文士가 政權을 차지하엿다. 그래서 文士들이 作亂하여 士禍니 黨爭이니 하는陰謀를일삼아서 無辜한 怨魂이 代를 조차서수를헤일수업시되엿다. 이때의 武士들은 氣息이奄奄해서 反抗의 氣運이 조금도업시 徒然히 文士의발아래 끌려서 소리조차업섯다. 그러나 이는 氣力이 업슴이 아니다. 儒敎에 感化되어 오직 消極的守節을 取한까닭이다. 그러므로써 李朝一代의 武士는 全然 安分藏身으로써 一大德目을 세우매 危難을 當하여도 消極的防守뿐이오 積極的活動은 업섯다. 그러나 一方으로 閭巷의 武士는 固有精神을 그대로 發揮하여 往往히 花郞風의 氣槪를 조차나감이 만흐니 金良彦 崔孝一이 그레라.

金良彦는 平壤人으로서 五百武士를 結托하여 春夏秋에는 武藝를 常習하고 嚴冬에는 國境에 衛戌하여 外寇를 防守하엿다. 이것은 全然 私的團體로서 國民自衛로의義擧여서 決코 官營의 指揮로한것은 아니다. 李适의亂을 當하여 自願出戰하여 千里를 追擊하더니 亂이끄치매 士를 除授하엿스나 良彦이 구지 辭讓하기 三回에 이르러 마지막에는 上書하엿스되「臣 … 가 一隻이엇더니 …」

隨筆 余心樂 (上)

朴鍾和

옛글에일럿스되 아버지어머님 함께 살어게오시고 형과 아오 연고업슴이 한樂이라 일렷더라. 진실로 이것이 사람들의 바라고 求하는 첫째소원일 질거움이 될진댄 내 어이 조치아니하리. 堂上에는 七旬에 가까우신 부모님 게오시고 슬하에 우리 세형제 다행이연고 업스니 진실로 천하의 한樂을 차지한세음이라 어찌 질거움을 지아니하랴.

더구나 질거운중에도 가만이 微笑하여 자랑삼어조흔것은 두분父母—모도다근력이 강건하오셔 아버이는 七旬노파신 나이면서도 때로는 하되술을 기우리시고 어머니는 아직도 치하가굿드시여 무심지를 사양치아니하시니 樂을 물오시는두분의편안하신것은 당신들의조흐신福力이려니와 미흡모신 세兄弟 洞洞屬屬 侍奉하는 수줄을 난호아보지아니하니 진실로 어찌질거웁지 아니하랴.

○

진실로 질거운중에 내홀로질거움이 더욱 만흐니 三兄弟가운데 나는 버금이라 우으로 언니게시고 아래로 아우를 거느렷더라. 이러고보니 나는 언니도 잇고 아우도 두엇더라. 때로 五十에 가까운 언니는 「아오를마시지 형은 업소 아우를 치다거리가 귀찬안소」 하고 어머님께웅석부리고 三十된 철난아우는 「어머니 나는 형님만아지 아오는 업송 물아덥 아우하나 잇섯스면조켓소」 하고 늙은 어머님께 하소연하더랑. 이가운데 소리업시「莞爾而笑」하는 사람은 나호자 뿐이라 엇지 질거웁지 아니하랴 모도잇고 아우도잇는 滋味無窮無盡하더랑.

○

친구가 五倫에들어 조타하나 어찌 兄弟樂을 따를랑. 五七 四七 三十된三兄弟는 때로 兄弟樂을 取할새 山寺에 나아가 고비나물을 맛보고 曲溪에 이르러 魚膾를 賞會새 이때 어찌 차마 서넌잔 술을 난호지 아니하랴. 低酌하는 風味—어찌 酒國과 술잔을 난호는 맛에 比하랴.

或이 일으되 兄弟 어찌 술잔을 난호까보냐. 내 대답하여 갈오대 亂할가 저허함이다만은 그곳에 미치지아니하면 고만아니냐. 程明道 程伊川가튼 嚴格한이로도 兄弟—同遊하여 妓樂을늘엇다하지 아니냐. 모름직이 樂而不淫할것이니라하니 或이 微笑하여 고개를 끄덕여 물러가더랑.

○

아직 세兄弟 抓하나 우러러 하늘에 붓그러운배업고 구버 사람에게 떳떳할 까닭이 업다. 스사로 눈감어가만이 빌되 엣어른말슴하신 三樂가운데 그를낫내가 어덧스니 이우에도한다시더무엇을 바라리. 고히고히걸손하고사양하여 길이길이이樂을 간직해보존하리다 하더.

二等當選短篇小說 洪水 (二)

金萬善 作 / 洪祐伯 畫

장대를빼들고 지영호는 가편의 바스슥 집어 기둥에 얽숨을헐딘다. 남은사람들도 잇때여 한숨을지는다. 배는 밀리고 남의집으로 남의집간에 온다.

「경화할아버지세요!—우리도 좀 태주세요」

하는 고함이 빗지연보집던 안에서들려온다. 할작제처진얼각대문으도 마루에서 동동 발을구는 세식구가 보인다.

「입대 뭘방을 하셋수」

지영호는 무간 기둥을 잡으며 외친다.

「용궁당으두 가세요」

이들 게슈」

「용궁당으론 가 뭘해요, 가만」

지영호는 그대로 배를 마당으도 돌이댈까 생각한다. 그러기에는 대문이 좁다. 그는 배를 … 새삼스럽게 거더올릴 필요도업당. 허벅다리까지 물에젓는당.

「용궁당으로 가두 금새 쪼껴날걸 가문 뭘해요. 이 물는것을 보시구료」

마루아메 이르러 지영호는 물아서 팔을 제친다. 노파를 번저 업는다. 그의 뒤를 따르젊은이는 사내놈을 업는다. 젊은이는 또 한번 아낙네를 업어오고 세사람을 더 실은 배는 그만큼 물우에 까라안고 물결은 배시전에서 찰락찰락한다. 그러나 배는 아무런 고장도 업시 뜰에 이른다.

뜰에서는 몃사람이 와짝 달겨든다. 서로들 허집고 나선다. 김씨는 그들에게 빽 돌리 쏴힌다.

「어때요?」

「부평부평 놀어만가는걸……비가 멈처야만하지 안는」

김씨의 한숨을 따라 모두들 한숨을 짓는다.

「우리집은 아직 괜찬허요?」

「양집은화서 못봣지만—누답집이구 물에 안쟁겻는 업스리다」

「양섯 장마에 기우러진 걸방을 고치지도 못햇는데…… 쓰러지지나 맑엇스면……」

젊은 여자는 안타까운 낫즈로 힘업시 물러슨다. 어쩌 복쪽의 저짝고든 비스발에 서리어 또렷하게 보이지도 안는다. 저마다 우산도 다 갓지 못햇다. 비에 저즌 사람들은 천진을 와들와들 떤다. 한굳데 부터 잇지를 못한다. 번차례로 뜰아래로 달려와 물의 는는 품을 유심히 겨냥한다.

「혈친 놈엇서!」

하고 뒷사람에게 알린다. 뒤로 그말이 퍼지고 물이 는것이상으로 한숨이 늘어간다. 뜰위는 와글와글 더한층 수선스러워진다.

김씨의 조금 뒤에서 갓난이가 재즈러지게 우름을 리는데다. 젊은 어머니는 젓도 안주고 몸기만 친다.

「이 웬수년의자식! 남의속도 몰르고웨 보채는거냐!」

젊은 어머니는 여페세간을 끼고섯다. 농장이잇고 뒤주가잇고 그뒤에 찬장이우뚝하고 오지항아리를 회다까지도 지키고섯다. 김씨의 눈에는 점점 그러한것들만 띄인다. 분한마음에 가슴을 두근거린다. 세간을 실어낸 집은 한두집이 아니다. 세간들은 사람들에 간간히 뭐게 자리를 잡고잇다.

김씨는 핵 몸을돌려 남편에게 급하게 가까이간다. 화가난 표정한소리를 와락 지른다.

「임자두 눈이 잇스면 좀보우 다들 실어내질 안헛나—어서 가서 실어와요」

「아수머니—인젠 안돼요」

뒷집 젊은이가 질색을 한다. 남편도 잠간 흘기고

「실어내다 비에저시면 낫게워야 물에잠상 녹기마찬가지로 아는게로군」

하며 오히려 핀잔을준다. 김씨는 더조르지를 못한다.

그러나 물은 줄을 모른다. 한업시 늘어만간다. 비스발은 바람에몰켜서 이리 저리 헤맨다. 용궁당 지붕까지만 가까스로 붇잡할수잇고 그이상은 오막까지도 비스발이 걷잡사흘을 드리치하계만 내려다 뵌다. 그뒤는하늘과잡아흘이 맛다어 한들이되엇다. 걸면 버드나무들도 때에떠업서리와도 고개만 겨우지다. 그빗도 거드스름하게 울생이 다되엇다.

世界의귀

蘇芬의戰雲으로念慮되던 "노—벨"文學賞授與式擧行

【스톡홀름 十四日同盟】「노—벨」文學賞授賞會에서는 一九三九年度 文學賞受賞者로서 芬蘭의 文豪로 「下女 시리야」作者인 「프란스·실란파」氏를選出하엿다함은 이미보도된바이지고잇거니와 그後蘇芬戰爭이일어나 「노—벨」文學賞授與式이 決定되지 못하던것이 延期되어오던바 「실란파」氏는 昨年十二月十二日 … 로 蘇芬國境의 「하파란다」넘어 「스톡홀름」에到着하여 授與式은 盛大히擧行하엿다고한다.

▲비타민讀本 (內閣醫學博士 …著) 近代人이 保健問題를 論議하면서도 健康의核心이되는 비타민에關해서는 너무도 無關心한것을 遺憾으로 녀이여 비타민의 大衆化實現을 目的하고 實際의應用方面에서 平明簡易하게 敍述한것으로서 本書의內容은 (一)비타민의 發見에서 ABCDE 新비타민 (二)新發見비타민의 性狀 (三)비타민의 相互關係 等其他十八章으로된바 家庭必讀書이다. (四六版一〇六頁 定價一圓 送料六錢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三丁目七番地 發賣文化勞會 振替東京一六四〇一六番)

家庭醫學

애기는팔자에태어낫다고 이것은거짓말입니다

이러케하면애기도날수잇고 부인병도근치됩니다

006366

말대로안되는것은 세상일입니다. 애기낫키를 바라 엇으로기다리고잇는 사람에게는 좀처럼애기가업고 (그) 와반대로 애기가너무만하서 고만낫스면하는사람에게는 착착들어서 세상사람들은 「애기는팔자에태어낫다고」미신의말까지하게되엿습니다. 그러나 요새가치 문명한세상에서 우리가 이와가튼미신의말을 그대로밋고가만히잇슬수가잇습니까. 만일여러분가운데 결혼후상당한날짜가지나서 애기를 나을때가 되엇는데도 애기가업는분은 직까지 애기를못낫는 그대로가만히잇거나 우로라도 지체하지말고 자기힘으로 애기를배도록 힘쓰지안흐면안됩니다. 그러면 어떠케해야 애기를못낫는분이 애기를 잘나케되느냐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먼저여러분들자신이 자기몸에 애기못낫는 고장이잇고업는것을 잘알아서

(수) 애기를못낫는 부인은 대개 자궁이 냉하고 월경때에는 허리아래배가아프고 일정한날짜에 월경이업서 …

(아) 와가튼 증세가생기게되는것이므로 설혹남이보기에는 무병하게보여도 애기를 배지못할것입니다. 요행이 애기를 배다하드래도 자궁이 튼튼지 못하여 三四개월만에 낙태하거나 八九삭만에 사산 조산을하거나 …

(이) 와한께 『오기나구』를 쓰시므로 자궁을 전부축여 훈침을낫게하여 대하증을 멋게하여야만 당신의부인병을 근치할수잇게 되는것입니다. …

(요) 사히 이약으로 부인병, 자궁병을 고치고 애기를나엇다는 감사장을보내주시는분만 이약으로 완전히 건강이회복되엇다는편지가 날마다 만히옵니다. 이약은 먹기에편리하고 쓰기도 조케되엇스므로 시집사리하시는 가정부인이나 처녀나 누구던지 자기집에서 아무도모르게 혼자서 병을고칠수잇스니 주저할것업시 지금즉히 주문하여복용하시기바람니다.

産前·産後에는 이와가튼조섭법을!

姙娠中에는 평소보다도더 한층 몸을편하게하고 힘든 는일을하지말고 冷하게하지 안토록特別注意하시고姙娠中에생기가쉬운 脚氣가튼것을 豫防하고 胎母의健康을 보충하기위하여『命之母』를복용하시면 健康한몸으로 무사히 출산하실수잇스며또한 産後에二주일동안은 絕對安靜이 必要하오니 起動하지 말고 産後의勞衰回復을速히하기위하여는 産前에 服用하시던命之母를 繼續하여 服用하시면 惡血을 淸潔히 하며 新鮮한血液으로 調整하며 날로元氣回復이잘되여 얼굴에 화색이돌고수분이 퍼지고 몸에살이쪄서 얼굴에회장을하지안하도 産前보다더욱어여뻐게되여 産母에게서젓이充分하게 잘나오므로幼兒의發育이잘됩니다

이신문을ㄱ

—자세히 읽어보시고 오려서 東京市京橋區入船町笹岡省三藥房으로보내시는분에게조선 말로알기쉽게 자세히 쓴책을하나 무료로보내드리오니 병서를누구에게든지 가르쳐주시면 부인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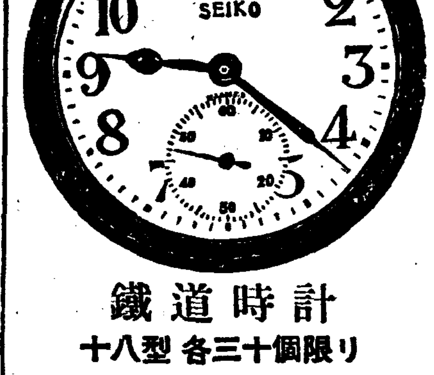
주문법

『명지모』와 『오기나구』를 주문하여복용하고자하는분은 병세와 속히자세히적어서보내

價		藥	
명 지 모		오 기 나 구	
十二日分	二圓二十錢	八日分	一圓
二十五日分	四圓三十錢	十七日分	二圓
五十日分	七圓十五錢	五十日分	五圓

東京市京橋區入船町
合資會社 笹岡省三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電話京橋二八八七番
婦人病自宅治療書無代進呈

▲萬年筆의펜촉은金펜에限함 在庫品五千本限奉仕 金펜촉은 特製不能!!
●高級エボナイト軸太サ五分プル金ペン先代用付
●最高級エボナイト軸正金プルペン先付
A 14K金ペン代用 弊所定價四、五〇品奉仕正價金一·〇〇品切 1號弊所定價七、〇〇品奉仕正價三·八〇
B 〃 六、〇〇品〃定價金二·九〇品切 2號〃 九、〇〇品〃 四·二〇
C 〃 八、〇〇品 〃正價金三·二〇 3號〃 一三、〇〇品〃 四·七五
團體註文은壹打以上同品三本半打는一本無代進呈……同業者도絕對로割引업다



正確 時間
鐵道時計
十八型 各三十個限り
世界第一精工舍製 東洋第一米國製 日本的世界
ウオルサム エルチン セイコウ
時間絕對的正確ナル標準七十年保證
七石入アンクル絕對責任付(十個限)
イ 弊所定價六十三圓品投賣正價 品切
ロ———七十五圓品——— 55·00
ハ———八十圓ノ品——— 70·00
ニ———九十圓ノ品——— 75·00
ホ———百十圓ノ品——— 80·00
クローム側 セイコウ十八型
七寶石入アンクル絕對責任付(但二十個限)
ヘ 弊所定價五十圓ノ品投賣正價 品切
ト———五十五圓品——— 品切
チ———六十圓ノ品——— 47·00
世界第一國産精工舍製
クローム側 十六型懷中時計
ウオルサム代用 四十年保證付
リ 七石入弊所定價二十八圓投賣正價15·00
ヌ———三十二圓——— 18·00
ル———三十七圓——— 20·00

時計ハ成工社へ 時間絕對的保證 品換自由或返金 萬一不向場合 世界的標準時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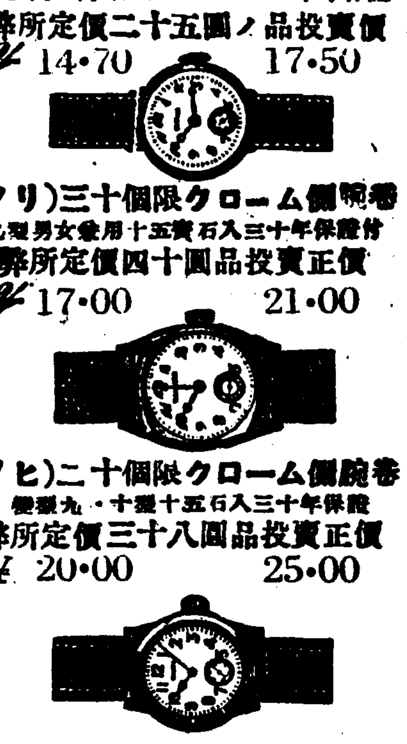
西瑞製提時計クローム側 十六型三十年保證付
A 七石弊所定價十五圓品投賣正價 一五·五〇
B 七石弊所定價十九圓品投賣正價 一七·九五
C 七石弊所定價二十五圓品投賣正價 一九·三〇
D 十石弊所定價二十八圓品投賣正價 一八·九五
E 十石弊所定價二十六圓品投賣正價 一三·七五
F 十五石弊所定價三十圓品投賣正價 一五·〇〇
G 十五石弊所定價卅五圓品投賣正價 二三·七〇
H 十五石弊所定價三十圓品投賣正價 二五·〇〇
I 十五石弊所定價卅八圓品投賣正價 二八·〇〇
J 十五石弊所定價四五圓品投賣正價 三〇·九〇
K 十五石弊所定價五八圓品投賣正價 三九·〇〇
L 十五石弊所定價六八圓品投賣正價 四五·〇〇
M 〃 七十圓品 〃 五五·〇〇

最優良クローム側提時計 ウオルサム十六型六十年保證付
1 七石弊所定價四十圓品投賣正價 二五·〇〇
2 七石弊所定價四八圓品投賣正價 二八·〇〇
3 七石弊所定價五十圓品投賣正價 三五·〇〇
4 七石弊所定價六十圓品投賣正價 四五·〇〇
5 十五石弊所定價七十圓品投賣正價 三八·〇〇
6 十五石弊所定價九十圓品投賣正價 四八·〇〇
7 十五石弊所定價百十圓品投賣正價 七九·〇〇
8 七石弊所定價八十圓品投賣正價 四九·〇〇
9 七石弊所定價百圓品投賣正價 五五·〇〇
10 七石弊所定價百十圓品投賣正價 五五·〇〇
11 七石弊所定價百圓品投賣正價 六五·〇〇
但各石共三十個限 エルチン同値

提時計クローム側 ウオルサム最高級品各五個限 六十年保證世界的標準時計十六型
サ 七石弊所定價百圓品 正價 六〇·〇〇
ゲ 七石弊所定價百廿圓品投賣正價 八〇·〇〇
ト 十五石弊所定價百卅圓品投賣正價 九五·〇〇
ケ 十五石弊所定價百五十圓品投賣正價 九九·〇〇
イ 17石弊所定價百五十圓品投賣正價 一三〇·〇〇
グ 19石弊所定價二百圓品投賣正價 一六〇·〇〇
ロ 21石弊所定價二百五十圓品投賣正價 一九五·〇〇
但ウオルサム二十三石入バンカートは世界的時計の王冠なり絕對的に標準時計であります
ワ 23石弊所定價三百圓品投賣正價 二五〇·〇〇
ン 23石弊所定價三百五十圓品投賣正價 二八五·〇〇

提時計クローム側 エックスレント十六型標準時計三十年保證 各十個限
七 七石弊所定價二十五圓品投賣正價 一二·五〇
八 七石弊所定價三十五圓品投賣正價 一五·八〇
九 七石弊所定價四十七圓品投賣正價 一九·九〇
十 15石弊所定價四十二圓品投賣正價 一九·〇〇
十一 15石弊所定價五十八圓品投賣正價 二三·〇〇
十二 15石弊所定價六十五圓品投賣正價 二五·五〇

提時計クローム側 タバンシーマー十六型四十年保證 二十個限
一 七石弊所定價二十圓品投賣正價 一五·〇〇
二 七石弊所定價廿五圓品投賣正價 一八·〇〇
三 十五石弊所定價三十圓品投賣正價 二三·〇〇
四 十五石弊所定價四十圓品投賣正價 二八·〇〇
五 十五石弊所定價四十圓品投賣正價 三五·〇〇
六 十五石〃六十二圓品 〃 四七·〇〇



卷腕側クローム限個十五(ノコ) 九型 萬人向 石入 アンクル 二十年保證 價正賣投品ノ圓五十二價定所弊 ¥14·70 17·50
卷腕側クローム限個十三(ノリ) 九型男女兼用十五寶石入三十年保證付 價正賣投品圓十四價定所弊 ¥17·00 21·00
卷腕側クローム限個十二(ノヒ) 九·十型十五石入三十年保證 價正賣投品圓八十三價定所弊 ¥20·00 25·00
卷腕側クローム限個十(ノル) 九八型 男女兼用 十五石 四十年保證 價正賣投品圓五十六價定所弊 一十三圓 三十一圓 二十五圓 三十五圓 二十七圓 三十九圓 四十二圓 六十八圓

良品소리사람부時計쓰顧客本位의成工社
朝鮮日報愛讀者에限하여 左揭堅牢正確無比한時計流質品, 又는同業者整理品을引受只今舶來時計類는輸入統制, 國産品不足이며 價格은大暴騰이되엿습니다마는 弊所는時價보다二三割以上廉賣키로斷行하엿슴니다 萬一注文한物品이意合치안흘때는 一週間以內에返品하시기를바랍니다 但返品到着하는대로 換品, 返金합니다 註文方法! 註文은要前金又는되도록 註文高三割以上要約東金送金方法! 送金은振替口座東京一五七九四一番セイコウシヤ營業所로又는小爲替로送金하시기바랍니다 特賣期日 自一月十一日 至三十一日限

●朝鮮日報愛讀者의게限하야特別新春賣出紀念奉仕로 各時計一月三十一日限正價그대로 受領하오니 四割引以上의 大割引!
●二月一부터는正價에다三割引上을斷行!
新春賣出紀念奉仕券 愛讀者限 新聞名 朝鮮日報 住所 氏名

各種時計·萬年筆·新·中·古·品卸問屋 (但同業者限特別相談應)
S.K セイコウシヤ營業所
東京市杉並區天沼三丁目七八三
振替 東京 一五七九四一番
(セイコウシヤカタログ要郵券三錢)

土地改良은消極的

資材確保가重大問題

朴鍾秀

耕種法에依한 增米計劃은 먼저말한바와갓거니와 今次計劃의一翼으로 一百六十九萬石(計石數의二割五分)을豫定한 土地改良事業은 그內容이 如何가 어떠한가?

먼저도 말한바와가치 從來의 增産計劃은 耕種法改善보다도 土地改良에 重點이잇섯고 土地改良도 灌漑改善事業外에 開墾, 開拓, 地目變換等의 積極的擴張을 圖謀하는데 잇섯스나 今次計劃에 잇서서는 이와가치 多面的, 積極的方法을 取하지안코 急速한增産을 實現하는一方 資材의節約, 卽資材를要하는程度가 적은方面으로 이事業을 遂行하자는 意圖를보이고 잇다.

그러하나改善對象은 勿論既設畓과 新設畓을 中心으로서 한것일수밧게업다. 一方 그旱害對策의見地」에서 보더라도 이와가튼 方法을 取할것이라고 計劃에는 說明되어잇스며 新規로開發한 境遇에는 灌漑改善을行한後 卽時로 그效果를볼수잇는것에 限하게되엿스며 耕地整理와 暗渠排水를實施하여 耕種法의 改善에對應하려는것이다. [illegible] 計劃대로 보아보면 全面積은 十六萬三千町步를 그中에는 [illegible] 灌漑改善, 用排水改良, 小規模事業으로 나누어잇는데 灌漑改善을 할것이 十二萬七千町步(이中에는 約二萬町步의 新規開畓을 包含하고잇다)로 全面積의 約七割七分이 이灌漑改善에 屬하여잇다。또그規模는 二百町步以上의 大規模의것이 七萬町步이며 二百町步未滿十町步以上의것이 五萬七千町步로되어서 大地區의 灌漑에는 아프로 未成立組合地區와 新規의地區로나누어 施行케되엇고 小面積의것은 그全部가 既設畓의部分이다。用排水施設은二萬四千町步로 그中에 耕地整理를할것이 一萬八千町步로되어잇스며 小規模事業은 一萬二千町步로서 一地區十町步未滿의 [illegible]改良事業으로 되어잇다.

[illegible]用排水의[illegible]은 [illegible]作 [illegible]에 가장 [illegible]中의 [illegible]어다。그것은 [illegible]그러나 하면 費(水)이던것을 生産의 手段으로서 充分히 利用하기에는 다[illegible]가 [illegible]外에는 性質이 달러서 그눈구 個人이 所有할수가업고 共有性을 가지고잇기때문에 물의 生産手段化過程에 잇서서는 언제든지 물을中心으로한 [illegible]社會를 構成하게되는것이다 水利組合이 그것이오 예부터나려오는 水利契가튼것도 亦是 이原理가 具現된것이다。

또耕作農業에 잇서서는 물을엇고 못엇는것이 耕作農業의 可能과不可能을 決定하는 根本的要素이다。

그러하기때문에 大正九年에 産米增殖事業을 [illegible] 土地改良事業은 그全部를 水利組合이란 組織아래에서 遂行하게되엇고 事業의 中斷도 水利組合의 存立不能[illegible]에 지내지못한다。

물이라는 [illegible]을 가진 自然과 [illegible]을 가진 사람의 結合이 [illegible]이오 灌漑改良事業이라고 [illegible]할수잇다。從來의 [illegible]計劃을 遂行함에 잇서서도 水利組合을[illegible]行하여 나가는데에는 一般의 여러가지 [illegible]와 組合[illegible]와 및 組合當事者[illegible]의 [illegible]도만혀섯기때문에 事業遂行中 工事費의化했던 組合員의 [illegible]으로因하여 事實上 [illegible]生活에 적지안흔 影響을 주게되어 [illegible]運動이 大大的으로 일어나지 안흐면 안될[illegible]勢[illegible] 釀成하엿섯다。

「計劃도 亦是 水利 큰 勞力과 [illegible] 我[illegible]히 實現할수업스며 어떠한形式으로서든지 土地改良事業이 한單位마다 [illegible]의[illegible]를 갓게될것은 容易히 생각할수잇다。다만그것이 增[illegible]

[illegible] 물을 [illegible]하는 同時에 [illegible]組合과 [illegible]지안[illegible] 되어[illegible].

다음으로 從來의計劃에서보 [illegible] 「灌漑에對한 勤勞」은 어떠케 되어잇는가?

그것은 아래와갓다 灌漑改[illegible]의 技術的助成의 補助[illegible]로 나누어져잇서서 從來[illegible]의 助成을[illegible]하여 從來보다

1, 灌漑改善……三割以內

2, 小用排水施設……五割以內

3, 小規模事業……五割以內

의 補助金을 交付하고 從來에는 指導[illegible] 監督만을 官에서 하고 測量, 設計工事監督은 모두 企業者側에서 하던것을 이번에는 다음과 가치 官의 業務를 擴大함으로써 技術的助成을 하게되엇다。

1, 大地區事業은 總督府에서 測量設計를 한다

2, 小地區事業과 小規模事業은 道에서 測量設計와 工事監督을 한다。

[illegible]

다 다만 所要資材를 [illegible] 土地改良事業의 [illegible] 되어잇다고할수잇다。

「生擴」並進主義에서 逐次主義로改訂!

鐵、石炭等基本物資重點主義

生産設備를有效廻轉

【東京電話】 生産力擴充計劃은 原料, 動力, 勞働等力의不足으로豫定대로 進捗되지못하여 擴充途上의 生産設備가 完成되지못한채 停滯狀態의것이 잇는同時에 完成된 生産設備도 또한 原料缺乏으로 因하여 其生産能力을 充分히 發揮할수업는 境遇가만허 結局資料에 多大한 浪費를 招來하고잇는것은 周知하는바와가튼데 當局에서는 이것을 再建하기爲하여 重點主義의 採用을 企圖하고잇는데 最近에잇서서의 基本物資의 深刻한 不足狀態에 鑑하여 此際 重點主義를 徹底케하여 生産力擴充을 基本産業으로부터 順次로 完成시키는 方法으로 轉換하라는 意見이 各關係當局間에 有力化하게되엇다 卽從來의 生産力擴充政策은鐵, 石炭, 金, 自動車等의 重要商品의 增産計畫을 有機的으로 並進시키는 方法을採用하고 잇섯는데 現下의 生産力擴充의 切迫된局面을 打開하려면 生産力擴充의焦點을 石炭鐵等極히 少數의基本物資에置重하여 全能力을다하여 먼저此等物資의生産擴充을 完成시킨後順次로 他生産擴充으로 移行해야될것이며 이것을爲해서는 從來와가치 各方面에잇서서의 生産力擴充에잇서서라도 結局 全生産設備의 有效한回轉을阻害하는 [illegible]것은 斷然排除해야될이며 따라 境遇에依해서는 一部民間의 生産設備를 一時그대로 放置하는것도 不得已한 事情이다 目下企畫院을 中心으로하여 來年度物動計畫을 立案中인데 外米의 大量買入等으로因하여 相當한計畫縮少는 不可避할것이며 이方面으로부터도 生産力擴充方針의 轉換을하게될情勢에 잇스므로 來年度生産力擴充計畫의實行方針이 並進主義로부터 逐次主義로 改訂될可能性이 매우濃厚하게되엇다

朝鮮內織物需給

昨年度=綿絲布商聯合會調查

朝鮮綿絲布商聯合會調查에依한 昭和十四年度의 朝鮮內의織物需給狀況(推定)은 如左하다

▲綿織物(單位方碼)

朝鮮產	一九三、七七八、五二九
移入	一八一、四四四、〇七四
輸入	八〇一
輸出	一三、一八七、九七七
移出	三一、四三一、七九四
朝鮮內需要量	一六八、三一〇、八四三

▲絹織物

移入	二八、九二七、九八二
輸入	一四
輸出	八一〇、七四六
移出	一二、二五三、五〇六
朝鮮內需要量	一五、八六三、七四五

▲人造絹織物

朝鮮產	二七、六三一、二六〇
移入	六六、三六五、一〇三
輸出	一三、九二八、四八五
移出	一、二六三、六八七
朝鮮內需要量	六九、八〇四、一九一

▲絹人絹交織物

朝鮮產	一、一八七、八三五
移入	二七、三七二、七二六
輸出	一二、四二、九八三
朝鮮內需要量	三六、三一七、五七八

▲스파織物

朝鮮產	三、四九五、四七四
移入	五八、三四〇、七二〇
輸出	二四、八九八、八八〇
朝鮮內需要量	三六、九三七、三一四

이를 前年度需給量에 對比하면如左하다 (單位方碼)

▲綿織物	減	四七、三三九、六三六	比率 〇、四五五
▲絹織物	增	一、七九四、四六一	比率 〇、八一
▲人造絹織物	減	九四、四八三、七〇〇	比率 〇、五七
▲絹人絹交織物	增	一、六七三、四六六	
▲스파織物	增	五、八八八、八三〇	比率 〇、一八九

二萬五千八百擔 朝鮮產棉花移出

內地에잇서서의 支那棉輸入組合에서는 前부터 總督府에對하여 支那輸入棉의統制로因한 輸入困難으로 製棉用原料需給窘塞에對하여 朝鮮棉의移入을 希望하여왓스므로 農林局에서는 右實情을考慮하고 今年度中 二萬五千八百擔의移出을 許可하기로決定하고 그移入에關한 具體的條件을協議하고저 支那棉輸入組合幹部는二十五日入京하기로되엇다

酒類搬出統制實施

買占·賣惜을根絕

配給方法具體策決議·弊害一掃

酒類配給의調整을 圖하기爲하여 酒造組合中央會에서는 淸酒에對하여 지난十六日 燒酎에對하여는 二十三日 各各統制委員會를開催하고 搬出制限等에關한 議決을하여 大體二月一日부터 實行되게되엇다 從來品不足豫見으로 買溜等을하여 配給의圓滑을 缺하기쉬웟는데 本決議事項의 實行에依하여 此等弊害의 一掃가期待된다 酒類의販賣店은 勿論一般消費者도 잘本決議事項의趣旨를 了解하고 이에協力하여 賣惜買溜等의 根絕을圖하기를 切望한다 決議事項은如左하다

淸酒搬出石數의統制及輸移出石數의制限에關한件

本酒造年度에잇서서의淸酒의需要는 相當히旺盛하여 需給關係로보면 相當量의增産을하여야할것이엇는데 旱害對策의節米運動에協力하여 二割減産을 斷行하게되엇스므로 內地의減産과相俟하여 品不足을招來하고 配給關係에相當한 異狀을豫來할것은當然할것으로 推察되므로 事前에淸酒의配給方法에對하여 適當한其體策을 樹立할必要가잇다고 思料되어 左記方法에依하여 淸酒搬出石數의 統制及輸移出石數의制限을하여서 淸酒配給의圓滑을期하려한다

一、淸酒搬出石數의統制에關한件

(一) 一個年을左의四期에區分하여 各期分의 搬出石數는 前年同期分의 搬出實績의八割(生産制限을 맛지안는것에對하여는十割)을限度로할것

第一期 自二月 至四月

第二期 自五月 至七月

第三期 自八月 至十月

第四期 自十一月 至一月

(二) 實際의搬出石數가前號의限度에達치못할境遇에는 次期以降分에 適宜配分을할수잇는것 但이境遇에는 當該酒造組合을 經由하여 所轄稅務當局에申告할것

二、淸酒輸移出石數(實用酒를除함)의制限에關한件

(一) 輸出淸酒는 前年實績의八割, 移出淸酒는前年實績의五割을限度로할것

(二) 輸移出向 淸酒로서 輸移出制限의 結果剩餘로된 石數는 이것을 미리 當該酒造組合에 屆出하여 朝鮮內向으로서 搬出할수잇음 但 翌年度 朝鮮內搬出基本石數에는 算入치안흘것

(三) 第一號의 前年輸移出實石數는 所轄稅務當局의 承認을 어든것에依할것

(四) 輸移出을 할때마다 當該酒造組合을 經由하여 所轄稅務當局에 申告할것

三、施行期日

本統制事項은 財務局長의 認可가 잇는날부터 計算하여 七日後부터 이것을施行함

燒酎搬出石數의統制에關한件

本酒造年度에잇서서의 燒酎의需要는 相當히旺盛하여 [illegible]

一、一個年을 左의四期에區分하여 各期分의搬出石數(三十度換算)는 前年同期分의 搬出實績의八割(生産制限을 맛지안는것에對하여는十割)을 限度로할것

第一期 自二月至四月 第二期 自五月至七月 第三期 自八月至十月 第四期 自十一月至一月

但前年의 實績이 업는것에對하여는 本酒造年度에잇서서의 [illegible]石數及前酒造年度부터의 持越石數의 四分之一을 基準으로 各期分의 搬出限度로할것

二、實際의 搬出石數가 前號의 限度에 達치못한境遇에는 次期以降分에 適宜配分을할수잇음 但 이境遇에는 當該酒造組合을 經由하여 所轄稅務當局에 申告할것

三、施行期日

本統制事項은 財務局長의 認可가 잇는날부터 計算하여 七日後부터 이것을 施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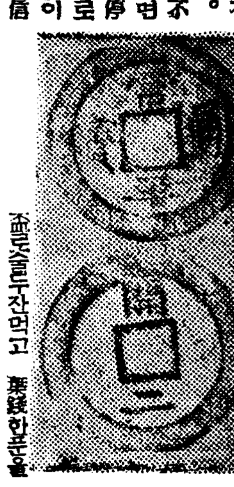
滿取에安取合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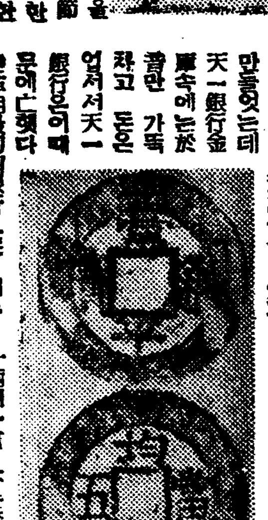
安取重役會에서決議

安東取引所에서는 二十三日緊急重役會를열고 協議한結果 滿洲取引所에 被吸收合倂을 決議하고 合倂方法條件等은 重役에一任하엿는데 安取株에는 東京大阪方面으로서 買氣가集中되어 目下二十一圓八十錢乃至二十二圓으로 一、二圓高騰되엇다

古手帖에서 찾은 (2)

財界秘話





不渡나면첨박는다

支拂人이 돈을치르지못하면 衷心한사람에게 대리대리건너가는데 支拂을못하게되면 지금가치 裁判하는것이아니라 아무大臣 어느承旨에게 私訴하면 그집下人이가서 大門에는 첨박고 商店을 閉門시키고 갓다가둔든가?

당 이것을免하려면 請質하는수밧게업고 그사람은 어레저레 결단이난다。

지금 不渡手形이나면 銀行取引停止쯤 으로 끗나는것이 아니요 信用을 구지켜야하는點에 色이잇다할까?

葉錢과當五

왜於音決濟가만코 現金去來가적엇섯느냐하면 그때돈이 거치장스럽기 때문이다 當五한個가 葉錢다섯푼이다 當五는 癸未年부터 생기엇는데 當五한個가지고가면大金돈술두잔먹고 葉錢한푼을 거슬러바덧다 그러던 時節이라 葉錢百兩을실으면 한지게가되고 말에실으면 한쪽에百兩씩 二百兩밧게못실게되니 이런돈가지고 一一어決濟할수업슬것은 當然한일이다 當五는甲午에 朝令으로葉一分에 兩用케되엇다

天一銀行과於音

朝鮮사람의 손으로 처음생긴天一銀行에서 於音을보고 割引發行을하엿다。目賀田氏가 財政整理할때 於音制度을업새버리고 手形組合을 새로만들엇는데 天一銀行金庫속에는於音만 가득차고 돈은업서서天一銀行은이때문에亡햇다 要李朝最初의銀行으로 너무나 큰 犧牲이아니엇슬까?

天一銀行에 이어서 생긴銀行이 지금의 漢城銀行으로 그동안 波瀾은 만엇다만은 오늘에와서는 嶺銀의 그늘아래 更生의길을것고 잇슴은든든한일이라겟다。

(寫眞上은 英宗二十六年及三十三年에 開城府에서 鑄造한葉錢인데 一文의 重은 二錢五分이오 百文이 一兩, 十兩이 一貫 下는癸未年에新鑄한當五錢)

京城商議豫算 廿八萬圓

賦課方法改正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去二十一의兩日間役員會를열고 昭和十五年度豫算及賦課金徵收方法에對하여 查定을行하엿는데 來二十七日 午後二時부터 議員總會를열고 右原案을附議 正式決定하기로되엇다 十五年度歲出入豫算總額은 二十八萬圓으로 昨年度의 十八萬圓에比하여 十萬圓(五割五分强)의增加를示하엿다 歲入에잇서서는 賦課金의 五萬三千七百六十圓增과 歲出에잇서서 給與費三萬百六十九圓의增이 顯著한것인데 右는 現在會員數四千十一人에 對하여 明年度는一千人의 增加를 豫想하는 同時에 支那事變以來 各商工業者의 業績이 자못 好成績을 示코잇다 一方 時局關係上 統制經濟化에 對應케하기爲하여 主事一人書記六人의 增員이豫想되는데 十五年度 經費賦課徵收方法은 各會員에對하여 最近에決定된 一年間의 營業稅額을標準으로 [illegible] 分의十六, 四千五百圓以下 納付者에게는 百分의十, 鑛産稅割은 百分의十, 取引所稅割은 百分의五 兩者各其賦課키로되엇는데 右營業稅五割增徵을豫想하고 從來의營業稅三千圓限度를 四千五百圓으로引上하는同時에 會員의負擔을輕減할方針下에 從來의百分의二十五를 十六으로 百分의十五를 十으로 各其賦課率을 引下하엿는바 前述과가치 最近의 業績이 자못 良好하므로 賦課金에잇서서 五萬三千七百六十圓의增加를보게된것이다

米移出累計 不過一割餘

米移入增、粟輸入減

財務局調查=一月中旬中의 米及粟의輸移出入狀況을보건대 移出米는 三萬八百九十七石으로 前年同期의 二十一萬六千四百十九石에比하면 겨우 一割四分二厘强에不過하며 이것을 十一月以來의累計로보면 二十四萬三千二百五十一石으로 前年同期 二百十萬七千三百六十石의 一割一分이되며 中旬에 二千五百九十七石이 移入되엇스며 前年同期보다는 三千八百六十石이 減少되엇스며 米移入에잇서서는 一萬六千三百四十一石으로 前年同期 五百十六石보다 一萬五千八百二十五石이 增加되어 이것의 十一月以來의累計는 九萬一千九百石으로 前年同期의 二萬九千二百四十八石에比하여 約三割一分八厘의激增이다 또粟輸入은 六千九百九十八石이어서 前年同期보다도 一萬七千五百九十石이 減少되엇스며 十一月以來의 累計로보아도 前年同期의 十七萬六千二百八十七石보다는 約五割一分이나 減少된 八萬六千六百四十二石에不過하다

粟輸入不振原因

粟輸入의 不振은 貨車不足에다가 穀類會社의 買入價가너무低廉한關係라한다

朝鮮米廿萬石 거의移出完了

朝鮮米의 對內地移出量 百五十萬石中 第一回分 二十萬石은 船便關係로 一萬石程度를 남기고 二十四日까지의 輸送을完了하엿고 남은二萬石도 今月末까지에는 輸送을完了시킬모양이다

內地서雜穀 尚未移入

內地에對한 朝鮮米의 第一回移出 二十萬石은 거의 輸送을 完了하엿는데 右移出은 四十萬石의 雜穀을 內地로부터 移入할것을 條件으로한것인데 不拘하고 現在까지의 雜穀의移入이 업서 어데로推移된다면 第二回의對內地移出은 遲延할수밧게업슬것으로 보이는데 朝鮮側으로서는 朝鮮內의 食糧配給의 緩和로도 內外地에잇서서의 米穀政策의 大局的見地에서 農林省에 要望하고잇다

賃金臨時措置令의 報告를提出하라

京城府尹이督促通牒

昭和十四年十月二十七日朝鮮總督府令第百八十號(賃金臨時措置令施行規則)에 依하여提出할「勞務者雇入當時에 基本給」「賃金基準」「昇格內規」는 昨十四年十一月二十五日까지에 提出하기로되엿는데 아직도提出지안흔者는 一月三十一日까지 [illegible] 命令한 報告를 提出하지안코 또는 虛僞의 報告를한者는 千圓以下의 罰金에處하기로되어잇다

多獅島、南浦 船舶入港不能

多獅島港과 鎭南浦港은 結氷으로 간신히 荷役을 行코잇는데 數日來의 寒氣로 全혀 凍結되어 船舶荷役은 不可能케되엇다 朝郵、商船等定期船은 當分間 兩港에 寄港을 中止키로되엇다

市俄古小麥低落

[illegible] 地場商品低에伴하여 東部側의 處分物이잇고 市勢는 低落되엇다

十錢

▼…酒類의買占 賣惜을 防止하기爲한 搬出統制案이成立, 配給이 圓滑히 되지안흘까도 하나 酒類가 巨大한商品인데 問題가잇는것.

▼…內地의 電力不足은 去益深化.

▼…朝鮮에는 多幸히도 水力動源이 豐富하나 天惡에漫心지말일.

▼…電力不足을 契機로 諸事業工場의 朝鮮移駐問題는 本格化形勢.

今日의市勢 二十四日

株式 採合後에反昇

前場軟調 今朝는 東新二低인 百四十圓一、鐘紡 三低인 百十三圓九、鐘新一低인 百一十一圓六에 寄附된後 [illegible] 結局東新百三十九圓七十錢 [illegible] 大引

後場反高 後場은 東新五圓丁, 鐘新 百十三圓丁에大引 [illegible]

諸材料輻輳 淺間丸에잇서서의 英國人逮捕事件은 各當局에서도重視하고 英國側에對하여 抗議를 提出하고 잇는데 이것이 東京證券에서 [illegible] 그推移如何가 注目된다

延取寂寥 賣買極小

前場不變 今朝도 依然賣買가적엇스나 玄米第一區 二月限에잇서서 最高價인 四十二圓二十八錢一本을 付하엿다

後場同調 後場은 正租一月限에잇서서 十二圓五十九錢一本을 付하엿다

現物保合

現物은目下 整理途中에 잇서 過去에「이善理」에 通하여 買付되엇던것도만흣니만큼 急速하게恢復을바랄수업는形便이어서 諸株가모두 保合程度에 끄치고 其中에는 續落된것도잇다

株 …東新은 依然百四十圓關門을往來

▲關門을 突破한高價엔곳 利喰이나오고 低價追擊賣도 警戒되어 自然小往來를持續 ▲그러나 目前惡材料가 [illegible]하고잇서 或은一段低價를 示할形勢 ▲그러나「인플레」를 一日二日에 抑壓할수도업겟스니 狼狽할것은업다는 氣分도잇서 强弱이 顯著하게對立 ▲左右間에 아프로波瀾이漸加될모양

[illegible] 目下不足하고잇스니 一方 日米通商의 無條約時代現出, 電力不足에 對한 各工場의休業續出等 惡材料가 續出되고잇는 狀態이므로 드디어 現物方面에까지도 整理期가到來하여 모두 下押을演하고잇고 東新도 百四十圓을上廻하는高價에는 곳利喰을 急하하여 警戒는深甚한것이엇다 그러므로 아프로電力問題가 打開를 보지못하는限 一段低價를示하게될것도 豫見되고 漸次波瀾을 加하여갈것으로보이엇다

今日財界 (二十四日)

◆米穀(京城、公定價)

正租㊤銀坊主三等斤	三錢五[illegible]
玄米㊤銀坊主四等(石當)	[illegible]
七分搗白米小賣價(同)	[illegible]

◆雜類(京城、卸賣價(公定))

大麥	一六〇斤	[illegible]
粟	一八〇斤	[illegible]
大豆	稍山三等	[illegible]

◆株 (單位十錢)

	今日後止	比前日後止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紡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商品(先限單位錢·圓)

大阪綿花	[illegible]	[illegible]
綿糸	[illegible]	[illegible]

海外經濟 廿三日

[illegible]

許可總督府 金買銀 社會買賣銀金 京城南大門通一の九五 (黃金町入口) 受引·金料底吹灰·金化青

京城物價 廿四日

[illegible]

銀行券 廿三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手形交換高 ◆大阪手形交換高 [illegible]

對外爲替

對米 百圓에 二三弗十六分七 對英 一圓에 一志二片十六分之 以上朝鮮銀行賣

鰯油粕·麥粉

◆阪神鰯粕(十貫) ◆阪神鰯油(百斤)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現在代引日歩取組 ◆大阪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大阪長期 [illegible]

棉花 綿布 生糸

[illegible]

三國志

韓龍雲譯 熊超畵 【78】

曹操의遷都 (七)

장비가 수십기를 다리고 곳우래에 이르러 현덕을보고 조표가 여포로 더부러 서로 연락하여 밤에 서주를 엄습하엿을 자세히 말하니 여러사람이 다 얼골빗을 일는지라 현덕이 탄식하되

「어든들 무엇을 죽히 기뻐하며 일흔들 무엇을 죽히 근심하리오」

팡공이 말하되

「아수머니는 어데 게시뇨」

장비가 말하되

「다 성안에서 나오지못하엿도란」

현덕은 잠자코 말이업고 관공은 발을구르며 원망하되

「네가 당초에 성을 지키고자할때에 무엇이라고 말을 하엿스며 형님이 무엇이라고 분부하더뇨 이제 성을일코 또 아수머니를 성안에 두엇스니 어찌하면 조흐뇨」

장비가 말을듯고 황공하여 몸둘곳을 모르고 칼을빼어 스스로 목찌르고자 하니 현덕이달려드러 안으며 칼을 빼앗서 땅에던지고

「예사람이 이르되 형제는 수족과갓고 처자는 의복과갓다하엿나니 의복은 떠러지면 오히려 가히 지울수가 잇거니와 수족은 끈어지면 이울수가 업나니 우리 세사람이 도원에서 의형제를 매질때에 가치 사는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가치 죽는것을 원하엿거늘 이제비록 고을과 가족을 일엇으나 어찌참아 형제로하야금 중에도 죽게하리오 허물며 고을은 본래나의것이 아니오 가족은 비록 성안에 빠젓스나 여포가 반드시 해하지 아니할지니 오히려 가히 계교를 베푸러구해낼수가 잇거늘 아우는 한때의 그릇칩으로 어찌 목숨을 버리고자 하더뇨」

말이마치자 크게우니 운장과 익덕이도 감격하여 우럿다。

원술이 여포가 서주를 엄습함을 알고 밤을도아 사람을여포에게 보내어 양식 오만곡과 말 오백필과 금은 일만냥과 비단 일천필을 줄터이니 가치유비를치자 하거늘 여포가 기뻐하여 고순으로 하여금 군사오만을 거느리고 현덕의뒤를 엄습하게하엿다。

현덕이 그소식을 듯고 비를무릅쓰고 군사를 거더서 우래를 버리고 다타나서 동으로 광릉을 취하라 하엿다

그때에 고순이 군사를이끌고 가서보니 현덕이 어데 가지라 고람으로 더부러 서로보고 원술이가 주마든 물건을 달라하니 기령이 말하되

「공은 위선 군사를 돌리면 에가 주공을보고 상의하리라」

고순이 기령을 작별하고 군사를이끌고 돌아와 여포를보고 기령의말을 전하니 여포가 정히 의심하고 잇던차에 원술의 편지가 온지라 그글을 보니

「고순이 비록 왓스나 유비를 제하지 못하엿스니 유비 잡기를 기다려서 그때에 빠야으로 약조한 물건을 보내리라」

여포가 편지를보고 노하야 원술의 신이업스물 꾸짓고 군사를이르켜 치고자하니 진궁어말하되

「원술이 수춘에 잇서서 군사가 만하고 양식이 족하니 가벼히 칠수가 업는지라 차라리 현덕을 청하야 소패에둔치게하야 하야금 우리의 날개를 삼고 다른날에 현덕으로 선봉을삼아 먼저 원술을 취하고 다음에 원소를 취하면 가히 천하를 종횡하리란」

여포가 고팔을조차 사람으로 하야금 편지를 현덕에게 보내엇다。

현덕이 군사를이끌고 동으로 광릉을 취하다가 원술의 엄습을 만나서 군사를 태반이나 일코 도라오다가 길에서 여포의 사자를만나 편지를 보자라 현덕이 기뻐하대 관, 장이 말하되

「여포는 의가업는 사람이라 가히 미들수가 업나이다」

「제가이미 조흔뜻으로 나를대접하거늘 어찌 의심하리오」

[illegible]가 현덕이 의심할까 두려하야 먼저 사람으로 하야금 현덕의 가족을 돌려보내니 감(甘)부인과 미(糜)부인이 현덕을 보고 여포가 사람으로 하야금 문과 수를 벼어서 다른사람을 드리오지 못하게하고 항상 보니를 계집으로 모든물건을 보내어떠러지지 안토록 하더라고 [illegible]